


2007 성폭력상담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2007 성폭력상담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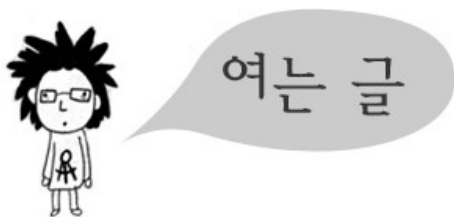
일시 | 2007년 8월 23일~9월 15일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열린마당

■ 주 최 | 유  상담법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는 객관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여성주의는 무전제의 전제에서 출발하지도 않고,
그 어떤 전제도 없는 청중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청중은 없기 때문이다.

- 캐서린 맥키넨



성폭력 상담 현장은 모순과 긴장의 공간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남성의 시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여성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 통념은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 여성과 상담원들에게도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부장적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찾는 것의 어려움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질문
여성주의 상담 원칙에 대한 의문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차이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는 현장 상담원들이 갖는 혼란과 질문 속에서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과 방향, 이후 변화를 위한 쟁점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지난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짚어보며 여성주의 상담의 의미를 새롭게 질문하고, 이후 상담 활동의 원칙과 쟁점을 고민해봅니다.

둘째. 자신의 상담/사건 지원 방식을 되돌아보고, 여성의 역량 강화라는 상담/사건 지원의 목표를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이를 위해 치유라는 지향 안에서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지원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와 함께 '꽃뱀' 즉 성폭력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신화가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도전되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셋째. 여성주의 상담 사례 연구 시간을 통해, 각자의 상담/사건 지원 방식을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넷째. 집단 상담과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 체험, 치유 글쓰기를 통해 이후 성폭력 상담 활동을 위한 힘을 키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자의 현장에서 쉽 없이 달려온 성폭력 상담/사건 지원 활동가들이

긴 호흡으로 여성주의 상담의 의미를 새로이 하고

자신의 상담 현장에 도전적 질문을 던지며

상담 활동가로서 자신의 행복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교육 일정

일시: 2007년 8월 23일~9월 15일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열린마당

한국여성정책연구원(숙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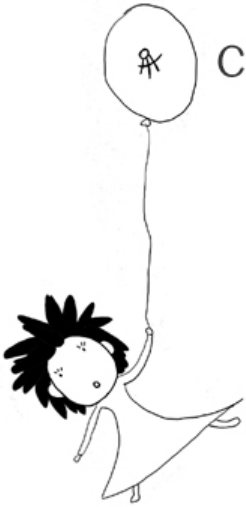
주제	날짜	회차	강의 제목
오리엔테이션	8/23	1	오리엔테이션 춤 세라피
	8/25	2	상담자로서의 '나' 돌아보기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 재점검	8/25	3	여성주의 성폭력 상담의 원칙과 쟁점
상담/사건 지원의 열린 가능성 탐색하기	8/30	4	사건지원의 지도그리기
	9/1	5	치유의 여정에서 '법' 활용하기
		6	'꽃뱀' 신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
상담사례연구	9/6	7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1)
	9/8	8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2)
상담을 위한 역량 강화	9/8	9	집단상담
	9/9	10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체험
	9/13	11	내 안의 또 다른 '나' 만나기
마무리	9/15	12	상담활동가로서의 '나' 그려보기
		13	수료식

* 강의 순서 및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사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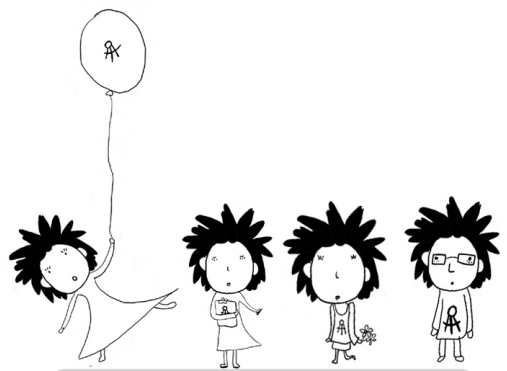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
권주희 (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
권해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김미랑 (서강대 양성평등 성상담실 상담교수)
김지선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모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미라 (칼럼니스트, '천만번 괜찮아' 저자)
박애선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변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이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임미화 (경희튼튼태권도장 관장)
지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키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CONTENTS

1강	춤 세라피 : 춤(움직임) 작업을 통한 자기치유 프로그램 “꿈꾸는 몸, 춤추는 마음”	10
2강	상담자로서의 ‘나’ 돌아보기	15
3강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과 쟁점 :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본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과 쟁점	18
4강	사건지원의 지도 그리기	28
5강	치유의 여정에서 ‘법’ 활용하기	35
6강	‘꽃뱀’ 신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	49
7강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1 : 여성주의 상담을 한다는 것의 현실적 의미와 어려움	62
8강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2	68
9강	집단상담 : - 집단상담의 정의와 목표 - 여성주의 집단상담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70 73 76
10강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체험	79
11강	내 안의 또 다른 ‘나’ 만나기	88
12강	상담활동가로서의 ‘나’ 그려보기	94

* 이 책에 사용된 사례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오리엔테이션

춤 세라피와 나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상담활동가로서의 나를 성찰해봅니다.

춤(움직임) 작업을 통한 자기치유 프로그램 “꿈꾸는 몸, 춤추는 마음”

모모 | 한국성폭력상담소

1. 프로그램의 배경과 개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제어나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폭력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브라이슨, 1997). 특히 성폭력은 여성의 몸과 마음의 분리라는 개인적 억압으로 연결된다. 개인적 억압에서의 몸과 마음의 분리는 성폭력의 상처를 겪는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전략으로 사용된다.

가해자의 언행을 통해 자신의 몸이 침해받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을 몸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피해 이전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분열과 스스로의 억압은 그들의 내면과 몸에 그대로 기억되고 남겨진다. 몸에 체화된 기억과 정서들은 스스로 직면하여 만나주고 표현해 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떠나지 못한 채 고착되어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춤(움직임)을 통한 작업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명상과 동작 치료의 골격을 성폭력 피해자 치유에 응용하여 만들었다. 여기서 명상은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의식(구체적으로 몸, 마음,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 수행은 주의를 비분석적 방식으로 집중하는 것이다(김정호, 1997). 이는 서양의 분석 위주 상담 및 심리 치료와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몸의 움직임은 변화의 수단이 되고 변화의 초점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며 이러한 피해자들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의 창작 활동은 ‘지금-여기’의 분노의 표현이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삶의 표현이 된다. 또한 어느 피해보다도 몸의 경험을 수반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방어를 최소화 하면서 참여자의 몸을 여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춤(움직임)’은 삶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총체적인 자기표현 방법이며, 생명의 본성적인 표현, 즉 자신의 모두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다(변미혜, 2004). 자신의 내면과 몸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심리적 현상을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 또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습들은 과거와 미래 속에서 바라보는 ‘지금’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직면하는 힘을 주체적으로 찾아가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을 경험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또한 확장시키는 경험이 될 것이다.

(1) 목적 및 활동내용

1) ‘춤’ or ‘움직임’

춤이나 움직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발레나 재즈 혹은 다른 양식의 동작을 떠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춤추기를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춤(움직임) 작업에서 ‘춤(움직임)’은 위와 같은 이유와 전혀 무관하다. 춤이란 어느 한 개인의 미학적인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춤(움직임)이란 우아하고 아름답고 호화스러울 필요가 없다. 기괴할 수도 있고, 추하거나 어색하거나 웃기고, 바닥에 쓰러지고, 공격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갈등으로 가득 할 수도 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혹은 육체적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본 이미지를 옮길 수 있다면 작은 손가락 하나면 어떤가! (anna halprin)

2) 춤(움직임) 작업에 필요한 개념 (Gabrielle Roth)

■ 목적지/방향

특정한 목적지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과 목적지가 없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기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미래를 내다보도록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나치게 목적을 지향하는 감각만 발달하여 원래의 방향 감각, 즉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내면의 충동과 욕구가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갈지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길을 따라 전개되는 풍경을 즐기는 것보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걷기 명상은 삶에 비유된다. 때때로 삶에서는 앞으로 똑바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아갈 길을 정할 때까지 뒤로 또는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거나 아니면 원을 돌듯이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 이러한 유동성이 필요하다.

■ 공간

우리는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장소가 진짜로 비좁게 느껴져서 나의 움직임을 제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단으로 움직이고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냥 걸으면서 빈 공간을 찾는 것이다. 물론 집단이 박자에 맞춰 움직이며 돌다가 빈 공간이 생길 때 각자가 방향을 바꾸면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혼돈 속에서 놀라운 질서와 패턴의 감각이 생겨난다. 우리들의 삶처럼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움직임에 있어 공간은 나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타인의 목적과 방향이 공존하는 혼돈을 모두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 그 혼돈의 공간에서 우리가 각자의 빈 공간속으로 걸어들어갈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 바라보기/인식하기/행동하기

‘바라보기’와 ‘인식하기’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춤(움직임)작업에서 가장 큰 도전은 머리가 아닌 몸속에 인식을 간직하는 것이다. 움직임을 통해 머리가 아닌 발에 인식을 정박시키고 ‘바라보기’를 몸의 특정 부분으로 옮겨보는 끊임없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 특정 부분은 머리부터 발끝, 세포 하나 하나까지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 연습은 일상의 실천, '행동하기'로 이어진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이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 호흡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흐름이다. 내가 방금 들이마신 호흡은 조금 전에 다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보낸 호흡은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춤(움직임)작업에서는 호흡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 호흡의 리듬과 호흡이 느껴지는 몸의 부분과 호흡이 닿지 않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연습은 내 몸이 깨어나는 가장 일상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 음악

춤(움직임)작업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집중하다보면, 맥박의 수, 심장 박동의 수, 숨의 들이쉬함과 내뿜음 등의 모든 것이 리듬과 관계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생명은 몸의 온 메커니즘의 리듬에 달려있다. 숨

쉬는 것은 목소리로 단어로 소리로 나타난다.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우리 속과 밖에 있는 소리, 그것이 음악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 안과 밖에는 항상 음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음악은 춤(움직임)작업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 귀 기울이기

춤(움직임)작업에서는 각 세션에서 서로 귀 기울이는 시간(경청시간)을 갖는다. 적극적 경청을 주장한 레이첼 레넨 박사는 그녀의 책 <식탁의 지혜>에서 “단지 들어보세요”라고 말한다. 나누기의 초점은 경청에 있다. 그리고 상대의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닌, 육체의 언어 뒤에 감추어진 어조를 듣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의 동작이나 말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며, 온전히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anna halprin)

2.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

① 몸 깨어나기 단계: 억압된 신체의 자각

굳어있고 긴장된 몸을 풀어주어, 몸을 이완시키고 오감(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깨어나게 한다. 우리의 몸은 평소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감각을 잘 알아차리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없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감각은 무뎌지기 때문에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정신적 상태로 바꾸어 말하자면 흥분되어있을 때 깨어나기(변화되기) 쉽다는 말처럼 우리의 몸도 먼저 세포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 비로소 차분히 세포 하나 하나, 감각 하나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몸 알아차리기 단계: 신체적 탐색

몸의 감성이 깨어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느낌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자연스러워진 우리의 몸은 스스로 갖고 있는 리듬이나 파동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우리의 몸은 반복을 통해 일정한 몸 동작을 기억하고 있고, 그 동작들은 사고나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 몸(감성)을 알아차리게 되면 기억된 동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나 행동이 가능하다.

③ 몸 표현하기 단계: 몸과 마음의 통합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되는 자연스런 동작이 바로 ‘움직임’이다. 따라서 몸이 춤을 추면 그

춤과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현실 즉 지금, 여기의 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나와 직면하고 경험하게 되면 폭넓은 개방과 감수성으로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자연과 교류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 서로에게 자신의 느낌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④ 몸 나누기 단계: 자신의 움직임을 찾고 건강한 관계를 갖기

개인의 표현이 자유로워지면 사회적 관계를 위해 춤과 몸을 나누어야한다. 몸 나누기는 개인의 춤이 상대와 만나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것이다. 몸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느낌을 나누고 공감하며, 내 몸과 타인의 몸이 만나 교류하는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상담자로서의 ‘나’ 돌아보기

박미라 | 칼럼니스트, ‘천만번 괜찮아’ 저자

《 오늘 당신은...》

1. 7가지 대화의 기술 중 키워드가 있었다면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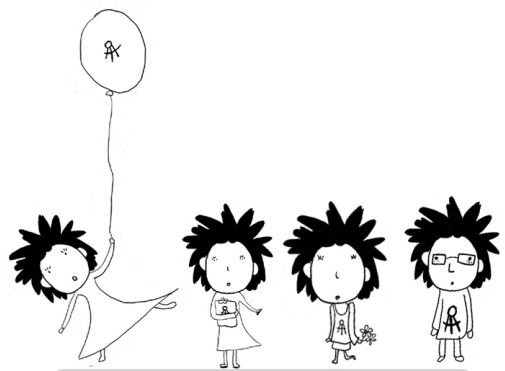
2. 그 키워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덧붙여 보세요.

3. 그림카드로 설명한 나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4. 그림카드로 설명한 내담자를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5.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담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6. 당신의 경우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 재점검

지난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짚어보며
여성주의 상담의 의의를 새롭게 질문하고,
이후 상담 활동의 원칙과 쟁점을 고민해봅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본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과 쟁점¹⁾

권김현영 | 여성학 연구자

1.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와 여성주의 상담을 통한 운동 방법에 대한 고민의 시작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보면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방법 도입을 중심으로 보면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계기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성폭력을 범죄로 만들어내는 운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운동,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이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내용이었다. 1994년 이후에는 제대로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감시활동과 부족한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정책제언 활동 등이 이루어졌고, 이 싸움을 통해 피해생존자를 위한 쉼터와 무료법률구조, 의료비 지원 등 피해와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졌다.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은 정부에 쉼터나 법률 및 의료지원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 결과 그동안 피해상담을 하면서 노후가 쌓인 여성운동단체들이 운영하던 쉼터와 상담소에 일부 예산이 지원²⁾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비정부기구로서의 헌신과 희생은 계속되고, 제도화에 따른 규제와 감시는 늘어난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담소 운영을 둘러싼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그동안 피해자를 만나고 지원하던 일들을 제도화시키고 권리로써 만들어내는 데에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당혹스러웠던 결과를 함께 만나게 된다³⁾.

1) 이 글은 <나침반을 찾아라>에 실린 “상담, 사건지원, 그리고 여성운동이라는 삼각관계를 다시 보기”(권김현영)라는 글과 <나눔터 45호>에 실린 “가해중심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권김현영) 글을 편집, 수정한 것입니다.

2) OECD 가입 이후 국내 여성운동에 대한 해외 원조가 끊긴 상황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에 봉착해있던 상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일 것이다.

3) 서비스 영역에서 대중들과 접하는 것 -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주의적 방식의 대안적 서비스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가는 큰 차이가 있다. 여성폭력추방운동의 법률 및 제도적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제도 운영 위탁 참여라는 운동방식을 낳았다. 상담소는 여성부 신설 이후 관리대상이 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엔지오 정체성 시비를 가져왔고, 여성운동 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쉼

반성폭력 운동이 제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에서 생겨난 이 새로운 역할은 상담과 사건지원, 여성운동 사이에 긴장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제도화는 나쁘고 운동은 좋다는 이분법 사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 긴장은 그런 이분법을 깨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제 이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계단을 밟아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 긴장을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쓰여졌다. 이 글은 상담과 여성운동 사이, 상담과 사건지원 사이에 놓여진 언어적인 분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짚고 그 과정에서 차이들이 과장 혹은 과소평가되었던 측면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통해 상담, 사건지원, 여성운동 사이의 삼각관계를 보고자 한다.

2. 감사와 제언의 주체에서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제도화 이후에 생긴 변화는 여성부와 구청 등에서 “지도,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구청관계자는 대놓고 “상담만 하지 운동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법을 만들고, 제대로 시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NGO에게 구청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구청의 태도는 제도화과정에서 운동단체가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렇게 정부가 비정부기구의 고유성을 침범하고 전문성을 착취하는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고민들이 다양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화 과정에서 상담의 운동성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에서는,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 생기면서 초기 상담·긴급 상담·24시간 상담은 국가에서 여성을 위한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단체는 상담의 역할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반성폭력운동에서 여전히 상담의 중요성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상담을 통해서만이 피해생존자의 변화를 발견해내고 운동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제도화에 대한 생각 역시 비정부기구(NGO)의 국정참여과정(Governance Process)에서 여성주의를 주류화하기 위한 실천 중 하나로 보다 적극적으로 쉼터와 상담소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도 있다.

무엇보다도 처음 반성폭력 운동을 의제로 만들어가던 시기에는 쉼터 및 경찰서, 산부인과 연계, 단순정보 문의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기상담의 역할만으로도 운동적 의미가 있었으나, 이후 반성폭력 의제가 제도화되면서 이 역할은 전체 반성폭력 운동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된 변화가 있었다. 단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91년 상담소 개소 때 24시간 위기상담을 받다가, 2000년 12시간 상담으로, 2003년 8시간 상담으로 점차 상담시간을 줄여가고 상담의 질과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이런 변화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터를 축으로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하는 외국 사례와는 달리 상담소와 쉼터가 분리되어 있고 상담소가 많은 한국에는 상담소나 운동단체나 하는 여성단체 내부의 정체성 토론을 유발하였다. -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망찾기” 사후자료집

3. 상담자와 사건지원자간의 분업

초기 상담 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나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이며 여성으로서의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던 많은 피해 여성들은 더 이상 성폭력은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며 가해자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식전환을 할 수 있었다. 이때는 심리적 지지와 병원연계, 법률정보 안내 등이 상담의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90년 중후반 이후부터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사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법정 동행과 의견서 작성, 서명운동 및 피켓팅, 가해자와의 조정, 공동대책위원회구성 및 요구안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상담소 내 활동가와 피해자 주변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지원자들이 “사건지원자”라는 이름으로 좀 더 명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상담과 운동의 분리과정이 일정 정도 반성폭력운동에 따른 결과물들이 제도화되면서 생겨난 문제였다면, 학교·지역사회·직장조직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건지원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은 조금 다르다. 상담이 듣기 중심이라면 사건지원은 해결 중심으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나는 해결사가 되기에는 권력이 없고, 상담자가 되기에는 심리관련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부족하다고 느끼며, 피해자가 동료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대체 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지 회의적이 되곤 했다.

하지만 사건지원자들은 피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다. 성폭력을 범죄화 시키는데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해도 동시에 다른 수많은 성적 공격과 만연한 차별,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주관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공격에 지원자 역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생기면서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정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 잘 이해해도 곤란하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지원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자책하지 말자. 지원자는 해결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피해자가 동료가 되어 같이 싸우기를 원한다. 때로는 이런 지원자의 욕구가 피해자보다도 앞서갈 때도 있다. 때로 피해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피해자의 상황만을 기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건지원자의 기본은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좋은 상담자의 기본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실에 같이 공감하고 분노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벅찬 일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 개인이 자기혐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와 공감을 보내는 상담자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지원하는 사건지원자는 치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되 각각 다른 역할이며, 이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담자 누구도 사건지원자가 될 수 있으며 사건지원도 누구도 상담자가 될 수 있어야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주의 상담 운동

그러나 제도화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담과 운동을 분리해야 한다거나 혹은 상담은 운동이 아니라고 이

문제를 풀게 될 경우,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주의 상담운동이라는 고유한 방식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려 하는 사회복지사와 대화할 기회 또한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상담자와 사건지원자를 분업화함으로써 상담자와 사건지원자를 변화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향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여성주의 상담은 비인간화를 수반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에 자책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생존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상담이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된 것은 운동이 집단적 행동주의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데, 상담은 1:1로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운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그런 1:1의 만남들이 바로 집단적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성주의에 관심이 없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성폭력 문제에 무능한 사회구조에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받으며, 무력하고 약하다는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충실해야만 피해를 인정받는다. 이 상황에서 피해경험에 대해 경청하고 당신 잘못이 아니며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다는 말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은 이미 충분히 운동이다.

그리고 여성의 전화를 주축으로 상담을 통한 운동방법을 보다 전문화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여성주의 상담”을 여성주의 원리를 상담이라는 방법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둘째, 내담자와 상담자는 평등하다. 셋째,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을 해석한다. 이 세 가지이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여성의 말이 남성중심적 질서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삼는 여성주의 경험론의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가 대상과 주체로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부장제 사회의 억압을 공유하는 여성으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자매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을 여성적인 정신적 질병으로 특수화시키지 않고, 증상을 판단하기 보다는 해석의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여성주의 상담 방법은 여성 몸적 경험의 공통성에 기반한 연대의 정치학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여성 경험의 공통성을 동질화하는 것에 대한 긴장은 뒷부분을 참고)

5. 여성에 대한 보편적 억압이면서 동시에 보편을 해체하는 성폭력 의미 구성

성폭력으로 입은 상처는 여성이라는 집단을 둘러싼 인식 자체가 변화되는 동시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야 치유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담가는 한 개인 여성이 겪은 고통이 설명되는 과정에서 그의 서사가 재구성되는 것을 돕고, 지원자는 새로운 여성의 언어가 발명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고, 운동가는 그 언어를 다시 세상으로 가져와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균열을 내게 되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과 사건지원과 여성운동이 함께 만날 때만이 이 각각의 과정

에서 피해자의 말을 조각내거나 타자화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개인의 고통에 집중하는 상담자, 가해자 처벌과 사건의 해결에 집중하는 사건지원자,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문화를 바꾸는 운동가라는 각각 다른 역할을 분리해서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는 면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역할은 피해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물론 법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운동의 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제도화과정에서 운동가로 자신을 정체화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현재 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기존의 목표는 몸을 식민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화된 몸 에 대한 정치적 목표를 상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우리에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무력하지 않은 힘있는 생존자이자 기존의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여성들이 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도, 우리들이 현재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목표도, 바로 그것이 “피해”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모든 음모에 함께 맞서는 것에 있다.

성폭력은 개별 여성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집단 여성에게 가해지는 보편적인 성차별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 여성문제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성폭력을 이렇게 여성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상정했을 때,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해 남성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인식 그 자체를 재생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여성이 인간이 아니라 단지 여성에 불과하다는 남성 사회의 여성 혐오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이 문제가 집단적인 여성학대라는 인식과 더불어, 성폭력이 각각 다른 섹슈얼리티의 경험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각기 다르게 이해되면서 생겨나는 파열의 긴장들을 환기해야 한다. 수치심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성에 대한 다른 인식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역사적 집단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고, 운동이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 않다는 변화에 대한 희망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에게 성이 “자원”이자 동시에 “낙인”인 이상, 그리고 “자원”화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들이 더 이상 공통감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폭력이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은 항상 변화한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상담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과 성”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없이는 불가능하다.

5. 생각해보기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 성별권력관계 분석, 기존의 객관성에 대한 질문, 여성 경험의 보편성에 대한 환기

“술자리에서 기분 나쁜 성적 농담을 들었다. A는 이것은 성폭력이라고 하고, B는 성폭력이 아니라 불쾌하기는 했지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

A와 B는 모두 여성이다. 여성 경험의 보편성,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 등의 여성주의 슬로건은 이때 모순되지 않는가? A를 용감한 문제제기자로, B를 비겁하고 타협적인 기회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A를 피해의식에 휩싸인 소심한 자로, B를 자기 통제적으로 살아가는 유연한 자로 볼 것인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은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을 각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한가?)

- 평등하지만, 지금 평등한 것은 아니다. 의식화(계몽/자유주의 입장). 의식고양그룹의 상호성(급진주의 입장), 성역할로 억눌렸던 여성적 주체 찾기(정신분석학적 입장).

“상담자가 알려주는 정보만 듣고 전혀 상담자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담자를 만났다.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며 너희들은 이 돈 국가에서 받으면서 왜 더 빨리 그리고 능숙하게 일을 해결하지 못하냐고 비난한다. 의사와 환자와 같은 명백한 권력관계는 애초에 없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평등하다면 무엇이 평등해야 하는가.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

가?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은 무엇이고, 같은 것은 무엇인가?

(3) 가치평가를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 여성주의 인식론(경험론과 입장론), 남성중심적 지식에서 여성경험의 부재, 재평명 해보기(여성/남성의 해부학적 차이를 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재해석하기)

“첫 성경험을 성폭력으로 경험한 내담자에게, 너무 순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혹은 너무 남자와의 관계에 의존적이고 여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내담자에게도 편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주의적 가치 평가가 사회의 가치 인식과 많이 다른데, 내담자가 여성주의와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낼수록 여성주의적 가치 평가가 무슨 도움이 될까 회의가 든다”

- 여성주의적 가치평가는 성에 대한 여성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성역할에 길들여져 있는 내담자의 경험이 남성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계몽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기존 반성폭력 운동단체들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 역시 비슷한 감정인 것은 아닌가. 여성들이 스스로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경험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4) 고통 ‘극복’이 아니라 재해석(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나?)

- 우울증, 히스테리, 반복/자살 충동, 거짓말 등의 증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증상”으로 이해하기, 사회 복귀 혹은 극복이 아니라 저항의 힘과 변화를 위한 희망을 목표로, 나와 타 인간의 관계 맺기(타인의 평가/인정에 종속되지도, 부인하지도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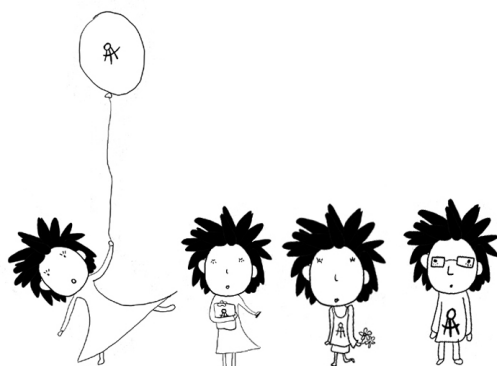
“하지만 상담이 아니라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 너무 심하게 히스테리컬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내담자를 대화로만 풀어가는 것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연계하고 있는 병원에 내담자를 소개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재해석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구조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오른다.”

-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약물치료 등을 완전히 거부하는가? 약물 및 화학치료요법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완화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나? 만약 거부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법적, 의료적 연계는 결국 여성주의적 상담의 포기인가? 또한 재해석을 한다고 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전제할 때 가능할 텐데, 이렇게 되면 둘 간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상담자의 가치관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 또한 극복이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담 혹은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미리안 그린스펜,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1995), 또하나의 문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성폭력 사건 지원-나침반을 찾아라(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주디스 워렐/파멜라 리머,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2004), 한울 아카데미
김민예숙외,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2005), 한울 아카데미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상담·사건지원의 열린 가능성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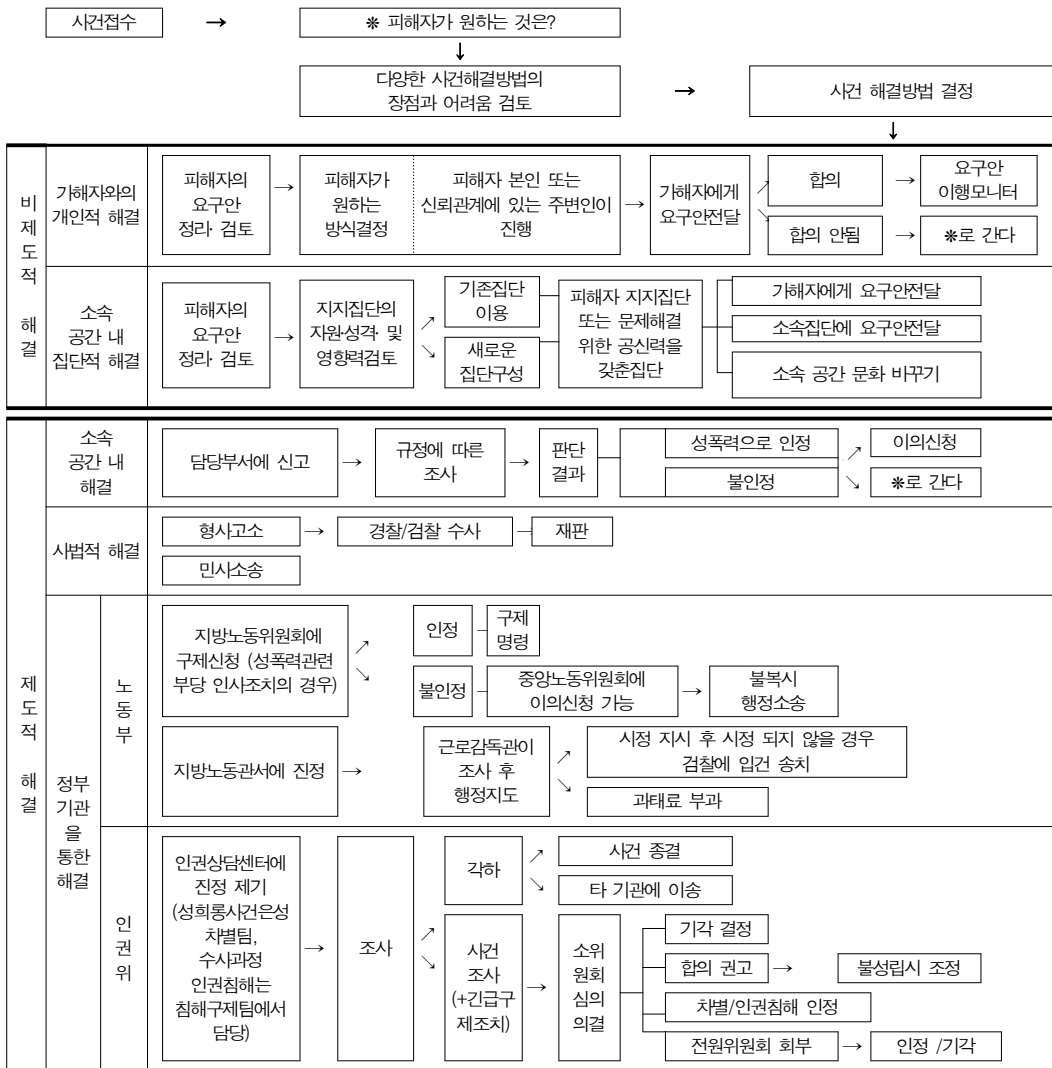
자신의 상담/사건 지원 방식을 되돌아보고,
여성의 역량 강화라는 상담/사건 지원의 목표를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이를 위해 치유라는 지향 안에서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지원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와 함께 ‘꽃뱀’ 즉 성폭력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신화가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도전되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건지원의 지도 그리기

권주희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사건 해결지도⁴⁾



4) 이 표는 200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에 수록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1. 사례 1

피해자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7살 때부터 시골에 있는 고모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작년 봄,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고모부가 강간했고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인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월경을 시작하지 않아 담임선생님과 의논했고, 선생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임신 4개월이라고 한다. 담임선생님은 서울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렸고, 어머니가 피해자의 이모와 함께 상담소에 오게 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동생과 의논하기 위해 같이 왔다고 한다. 상담소에 오기 전 이모는 고모와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피해사실을 알렸다.

(1)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보자.

■ 피해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워보자.

예) 임신 중절 수술을 원한다면, 임신 중절 수술만 하고 가해자와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출산을 원한다면 등

■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보자. 고소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피해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음.

수사과정에서 왜 빨리 얘기하지 않았는지 문제 삼을 수 있음

(2)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점과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 어머니

예)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지-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등

■ 아버지

■ 고모

■ 담임 선생님

■ 이모

2. 사례 2

A는 20대 여성 직장인으로 한 달 전 친구의 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애인의 친구인 B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 A도 B에게 호감이 생겨 그 다음 날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된 상태에서 강간 피해가 있었다.

A는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며 정신이 들었을 땐 모텔에서 B가 강간을 하고 있었고 A가 저항하자 얼굴 등을 폭행하여 화장실로 도망쳐 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법적 진행 과정에서 B는 A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얼굴 등의 상처도 혼자 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폭행은 인정되나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수사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다.

(1) 불기소 의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써보자.

■ 피해자가 피해 당일 경찰 진술에서 폭행 피해만 진술했다.

■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을 못하는 반면 가해자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가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 모텔 주인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주인이 말한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틀렸다)

(2) 만약 가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해 모텔에 가게 된 것이지만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마음이 변해 거부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가 있었던 것이라면 지원계획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나는 이 사건을 성폭력 피해로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이 나타남에도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해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 도중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보자.

3. 사례 3

피해자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외사촌오빠이기도 한)이었던 가해자에게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도 어려웠다. 중학교 때 가족관계에 불화가 있었고 가출도 했으며 자퇴를 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혼을 했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금도 교육 관련한 일을 하며 가정도 꾸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피해자는 최근 어린이 성폭력을 다룬 TV프로를 보니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의 피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싶어 상담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1) 이 사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 피해자는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보상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상담소에서 결정해 달라, 가해자와 만나 얘기해 달라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런 경우의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

(2)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다. 최근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 성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즉시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 공소시효를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고소를 바로 하지 않는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공소시효를 없애면 안 된다.

■ 이밖에 다른 의견

치유의 여정에서 ‘법’ 활용하기

김지선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들어가며

성폭력 피해자(내담자)를 만나면서 상담자⁵⁾가 주되게 하는 역할 중 하나가 ‘피해자(내담자)’의 법적 해결을 위한 지원일 것이다. 여기서의 ‘법적 해결’은 단순히 성폭력가해자를 징계하고 처벌하여 물리적, 정신적 보상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즉, 피해자의 ‘법적 해결’은 피해로부터의 회복 뿐 아니라, 그(녀)의 삶 전반에 대한 내적, 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기에 상담자는 ‘내담자(피해자) 역량 강화’라는 지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며, ‘법적 해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내담자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힘을 되찾는 과정과, 내담자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재구성, 지지네트워크 형성을 돕게 된다.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에서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여성폭력관련 법(국가인권위원회 법, 남녀고용평등법,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 성 보호법 등), 대학내·조작내 성폭력관련 내규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적 해결은 각 성폭력상담소에서 내담자 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들 또한 법적인 해결을 자신의 치유에 중점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왔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상담/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만큼이나 피해자와 지원자들은 법적 해결 과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지원자도 피해자도 의도하지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의 법적 해결이 ‘내담자 역량 강화’의 일부가 아닌 사건해결의 전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내담자의 욕구가 법적인 해결로서만 풀리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물론 내담자가 원하는 법적인 해결을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피해를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남성, 가해자 중심의 법 현실 속에서 내담자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그 예로 수사, 재판기관에 의한 2차 피해, 주변인들의 가해자 옹호 분위기, 가해자 측의 명예훼손 역고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사법 체계의 가부장성과 경직성이 여전히 견고한 상황에서 성폭력 상담/사건지원에 있

5)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돕는 사람을 ‘성폭력전문상담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상담자/상담원/지원자를 혼용하여 쓰도록 하겠다.

어서 ‘법적 해결’이라는 과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전제로 성폭력 관련법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법적 해결’과 피해자의 ‘해결’ 사이의 괴리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적 해결이 내담자의 역량 강화라는 지향 안에서 입체적,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성폭력 상담/사건지원에서 피해자 치유와 ‘법적 해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폭력피해 상담/사건지원에 있어서 ‘법적인 해결’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해온 활동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1) 형사 소송 사건 지원

- 고소 전 단계 상담(법적인 해결 과정 전반 안내, 필요 시 의료기관, 변호사 연계)
-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 고소장 검토, 진술서 검토, 관련 증거, 참고자료 제출 안내
- 경찰, 검찰 조사 동행(피해자 수사, 가해자 대질 수사 등), 2차 피해 모니터링
- 합의 안내, 합의문 검토
- 불기소 될 경우 항고·재항고 지원
- 1·3심 공판 지원(의견서, 탄원서, 성명서 등), 2차 피해 모니터링
- 역고소 대응
- 사안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집회 및 법정 참관, 간담회, 토론회 개최

2) 민사 소송 사건 지원

- 소송 전 단계 상담
- 변호사 연계
-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3) 대학내 · 운동 조직내 사건 지원

- 해당 사건의 피해자 상담, 사건지원자(대리인) 면담
- 성폭력 내규 검토 및 사건 해결 관련 조언
-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참여
-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별 상담/지원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

6)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한 ‘법적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해결’ 과정 속에서 개별 내담자와 지원자들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의 ‘해결’ 사이의 괴리는 무엇이었을까?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피해 사례와 그 지원 과정을 통해 개별 내담자와 지원자가 겪은 어려움, 딜레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적 해결 자체의 어려움

■ A의 이야기

20대 대학생인 A는 친구 B와 함께 재수시절 학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30대 과외교사 갑을 만나 술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B는 술자리 도중 먼저 집에 가고, A와 갑은 2차를 가서 술을 더 마셨다. A가 술에 취해있는 상황에서 집에 바래다주겠다하여 갑과 택시를 같이 탔는데 내리고 보니 갑의 아파트였다. A는 집에 가겠다고 다시 택시를 잡으려했으나 갑이 새벽이니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날 밝으면 가라고 하여 같이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 후부터 갑이 돌변하더니,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른다는 협박을 하면서 A를 강간하였다. A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당하다가 갑이 자는 틈을 타서 옷만 걸쳐 입고 아파트로 빠져나왔다. 나오면서 아파트 주민(여)을 마주쳐 도와 달라 하였고 그 날 아침 상담소에 연락이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상담원과 경찰병원 다녀온 후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는 바로 구속되었다.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측(가해자의 남동생)이 합의 요구하여, 몇 차례 만났으나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A는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해자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또 한편 자신도 술 마시고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상담원은 A의 결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일주일 뒤로 면접 상담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일주일일이 되지 않아 A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검찰에서 담당검사가 피해자가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보다 더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구석에 물리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이만 정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상담원에게 전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즉,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그 증거 속에는 가해자의 정액,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 등의 물질적인 증거뿐 아니라, 많은 경우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에 적극 저항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법조인들의 인식 속에서의 가부장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즉, 가해자의 일방적 성적 욕망 추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물리적으

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동의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성폭력관련 대법원 판례 바꾸기’운동을 하고 있고, 최근의 몇몇 판례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개개의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법 언어 자체가 객관성,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겪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양가 감정, 가해행위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맥락,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성폭력,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법정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분석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매년 전체 상담의 75~8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적 해결만이 삶의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 S의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인 딸 S와 함께 살고 있는 A는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제빵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빵학원 강사 B를 알게 되었고, 데이트 관계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게 되었다. A는 그 후 제과점에 취직했고, B는 강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강의가 불규칙한 B는 딸인 S와 오후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B가 S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A는 한동안 모르다가 S가 B가 싫다고 따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에게 사실을 확인했으나 B는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A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딸과 따로 나와 살게 되었고, B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고, 이어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불기소 이유와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A는 마지막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한, B와 같이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제빵학원 강사 C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상담소에 도움요청하게 되었다.

상담결과 법적인 해결과정이 그동안 2년 넘게 흘러있었고, 이 과정에서 딸과의 사이도 소원해진 상태였다. A는 딸이 이제는 법적인 싸움을 하는 게 지쳤다고 말한대며, 딸을 위한 일인데 어머니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A는 지금까지 썼던 시간적, 재정적 에너지가 아까워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말한다. S는 이 일과 관련해서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느끼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법적 해결’만을 모든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대안은 전혀 소통되지 않는 내담자와 만날 때이다. 특히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법체계에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대리인이 원하

는 법적인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해결만을 원하고, 피해자가 가진 다른 모든 자원을 법적 해결에 쏟아 붓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난관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갈등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법적 해결이 기존 거부장적 여성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로 인해 나의 '순결'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려면 꼭 법정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와 만날 때 지원자는 갈등하게 된다. 성폭력피해가 순결 상실과 연결되지 않으며, 피해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은 법적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임을 피해자와 소통하고 싶지만,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쉽지 않다. 또 다른 예로서, 피해자의 욕구는 파악되지 않은 채 법적 해결만을 중시하는 피해자의 대리인과 지원과정을 함께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라도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자는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과연 법적 해결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고 싶어지지만, 자칫 경솔하게 접근할 경우 지원자를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어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피해자(대리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대리인)도 지원자도 만족하지 못한 채 지원 과정 자체가 호지부지되어 종결되기도 한다.

(3) 내담자 역량 강화 전략의 협소함

■ B의 이야기

30대 여성인 B는 6개월 전 무기력감, 우울증으로 개인정신과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담당의사 D는 B에게 용기를 주면서, 앞으로 다른 환자보다 더 많이 신경쓸테니 나만 믿으라고 말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B는 의사가 자신에게 특별하게 잘해준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D는 진료가 아닌 날에도 우울증에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B를 불러 드라이브 시켜주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B는 자신에게 환자이상으로 잘해주는 D가 점차 좋아졌고, D도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D는 그 후 자신이 성적으로도 치료해주겠다고, 섹스를 제안했고, B는 치료의 일부분이라 믿고 주기적으로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점차 B는 그동안의 D의 행동을 보던데,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도 D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관계 몇 차례 후에 최근 D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이제 우울증도 치료되었으니 병원에 올 필요 없고, 따로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B는 갑자기 변한 D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D가 자신을 속인 것인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우울증 치료와 D와의 성관계가 아무 연관이 없었으며,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마음에 D를 성폭력으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D에 대한 의존이 생겨버린 상황에서 바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D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D가 아니라 D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B는 D가 아내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면서 D가 완전히 자신을 이용했다는, 순결을 잃었다는 분노감에 고소할 결심을 굳히고, 상담소에 고소 가능 여부와 정신과 의사의 치료범위에 대한 문의, 고소지원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법적 해결’ 외에 내담자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이유는 상담/지원전략 자체가 풍부하지 못함 때문이기도 하다. 지원자 스스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원 외에 다른 전략을 갖지 못할 때 내담자 또한 법적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고, 해결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분노 표출 방식이 법적인 징계 외에 많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에게 법적 강제력을 통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게 하기 어려운 지점에 지원자들도 같이 갇혀있기도 하다. 다른 방식의 가해자 대응(예로서 집단적으로 가해자 만나서 욕해주기, 가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 사실 알리기 등)을 불법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 갇혀 선불리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법을 통한 방법 외에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지원자들이 속해있는 상담소, 여성단체가 갖는 제도적 틀이 갖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내담자 역량 강화 맥락 속에서 기존의 여성성 해체, 성폭력피해 의미에 대한 균열내기 등의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 섹슈얼리티 재구성하기, 수동적이고 보호중심의 여성성 해체하기를 통한 내담자 역량 강화에 대한 전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를 어떻게 현실 적용 가능한 지원전략으로 만들어 갈 지에 대한 내용 생산과 시도들은 거의 없기도 하고, 몇몇 지원 사례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자료화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여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놓은 여성정체성 속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만 사건 해결과 치유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내담자에게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전략 외에 다른 전략과 해결 방법이 있음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지원자가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또한 내담자 개개인에 대한 1:1 역량강화 전략을 넘어서 성폭력·섹슈얼리티 워크숍, 캠프 등의 집단 역량 강화 전략이 부재한 현실도 피해자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10대 여성 다른 몸 되기 훈련’, ‘여성들의 욕망 찾기 초급과정’, ‘꿈꾸는 몸, 춤추는 마음’,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성폭력생존자의 작은 말하기’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전략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전략, 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하게 내담자들에게 안내, 시도, 모색,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상담/사건지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변화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적 해결’과 그에 대한 획일적인 상담/사건지원만으로는 피해자와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해결’ 지점에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담, 지원 전략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세부적인 상담/사건지원의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지원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 지향을 가지고 상담/사건지원에 임해야 할 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앞의 세 사례에 대한 지원 과정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을 가져보기로 한다.

세부적인 상담/사건지원 전략을 현 시점에서 목록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담/사건지원 전략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시도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전략의 자료화는 앞으로 지원자들이 모의 상담 사례 지원을 통해서, 개별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함께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1) 피해자 중심 사건지원, 새롭게 집중하자

피해자 중심주의⁷⁾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서 지원자들이 수동적으로 상담/지원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피해를 해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하되, 변치 않는 고정된 존재도 전능한 존재도 아니다. 이는 단지 성폭력 개념규정을 피해자만이 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원자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상처에 귀를 기울이면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건지원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의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생존자가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지원자들은 피해자가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질문, 요구에만 답하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 해결’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인지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해 지원자와 피해자가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적 해결’이 피해자인 나에게 가져올 긍정적 힘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법적 해결’이 유리한 방향이 되었을 때와 함께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때 나타날 나의 변화를 예상해봄으로써 ‘법적 해결’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으로 본다면, 피해자와 함께 ‘법적 해결’과정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될 지, 효과적인 전략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 사안에 따라 법적 해결 과정을 중단하는 전략을 선택해볼 여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인 피해자 상담 전략

여러 상담/지원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대리인(부모, 교사, 사건지원자, 애인 등)’의 해결 욕구와 ‘피해자’의 해결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피해 당사자와의 직접 상담과 지원과정에서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지원자들은 피해자가 어리거나, 성인이어도 대리인에게 사건 해결을 맡기면서 상담현장에 나타나

7) 『성폭력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148-149p,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지 않는 경우, 지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으로 지원과정을 풀어가려고 하였다. 특히 법적인 사건 해결의 경우, 사건 해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리인과의 간접적인 소통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언급했듯, 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은 성폭력 상담/사건지원의 궁극적 목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상담/지원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정리하며 해결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내담자 역량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지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때때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피해자들도 해결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이때는 지원자나 대리인이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말고, 피해자가 왜 지치게 되었는지, 지원/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된 지점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지속 지원 여부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지원자 또한 미성년자 보호담론 속에서 그(녀)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모를 당사자로 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해결의 중심에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혹은 물러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의 고민, 욕구, 해결과제가 계속 해서 변화할 수 있음을 수용

지원자들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지원과정 속에서 쉽게 잊게 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성폭력 사건지원의 구체적 목표와 방법은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다양한 욕구와 그 욕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고민, 과제, 감정도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과정 내내 피해자의 욕구의 변화, 지원자의 욕구의 변화 등에 대해 보다 솔직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해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원을 원하는 과제가 변할 수 있고,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 상황에 대해 지원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물어두기 보다는 시기적절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때로는 지원상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4) 내담자 강화 전략의 다양한 발굴

이는 개별 지원자의 몫이라기보다는 상담소, 여성단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개별 지원자는 이러한 전략들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전략들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으나, 상담/지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내담자 지원전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현재 상담/사건지원이 ‘법적 해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인지는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또한 법적 해결 외에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대응전략, 가해자 개인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 가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대응전략 등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 주변, 가해자 주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고 피해자의 목소

리를 귀 기울여 듣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내담자 역량강화에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 간의 ‘힘주고 힘 받기’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작은 말하기’ 작업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으나 ‘성폭력, 섹슈얼리티 관련 캠프, 워크숍’ 등도 전략의 하나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피해에 대한 치유와 해결은 개인 내면의 치유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성문화의 변화가 같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개인의 경험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으로 바라보고 다른 여성 사안,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 연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내담자 강화 전략의 한 방안일 것이다.

4. 생각해보기

다음의 사례를 읽고 본 강의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둠원들과 토론해봅시다.

1. 사례에 드러난 내담자의 원하는 바를 짚어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봅시다.
2. 지원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짚어 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사례> 운동 사회 성폭력 : 운동 사회 내 데이트 성폭력

환경운동을 하는 여성활동가 A와 남성활동가 B는 같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연인으로 동거 중이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B는 A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 낙태 강요, 폭행,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혔으나 A는 활동 공간 안에서 B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A에게 있어서도, B에게 있어서도 환경운동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였고, 다른 활동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A는 활동 공간 안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여 이야기할 수 없었다. 활동 공간 안에는 여성활동가들이 많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고거나 성폭력예방강연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동거 후 1년 정도 있다 B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였고, B가 활동 공간의 다른 여성활동가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A는 그 충격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할 지 고민했다. 무엇보다 A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일도 집중이 되지 않아 단체에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게 된다. 갑작스런 A의 활동 중단 선언에 다른 활동가들은 의아해했고, 친한 활동가 C가 A를 찾아가 활동 권유를 하는 상황에서 A는 그간 B에게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활동할 의지를 잃었다고 이야기하였다.

C는 A에게 그간의 일은 성폭력이며, 단체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A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A는 B같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평화운동조직 내에서 활동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B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무기력해진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다. C는 A와 이야기를 마친 후 단체로 돌아와 대표에게 사실을 전달했고, A의 피해에 대한 해결 욕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여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사례2> 직장내 성희롱 : 직장내 회식 자리에서의 성매매발언

회식자리에서 동료남직원 K가 자신의 성매매 경험 이야기를 꺼냈다. 1차 회식이 있은 후,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은 먼저 자리를 뜨고, 2차 회식으로 평사원들이 남아있는 술자리였다. K는 남자는 수시로 성적인 욕구를 풀어주어야 한다면, 자신은 결혼도 아직 안한 상태이고, 애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표현했다. 회식자리엔 남직원 A, B, 여직원 C, D, 그리고 K 총 5명이 있었다. K의 이야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별 이야기 안하였고, B만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음성적인 성매매산업이 늘었다고 현재 정책을 비판하였다.

C는 회식 자리에서는 별 이야기 안했으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회식자리 내내 자신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음을 기억하고, 회사 회식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C는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D에게 찾아가 어제 K의 발언이 불쾌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으나, D는 K가 평소에 솔직하게 자기는 표현하는 사람이라 술이 취해서 사생활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자신을 대상으로 희롱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는 D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여자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만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상했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불쾌했던 자신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성매매가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식자리를 이용해 K가 한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K의 발언을 문제제기하기 전에, K가 했던 발언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K의 행동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고자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3> 청소년 피해 : 어머니와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해석 차이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성추행 당했다며 가해자 법적 처벌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보호자인 어머니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다고 하였다. 남편이 알면 딸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며, 남편 모르게 가해자를 혼내줄 방법이 없는지도 같이 문의하였다.

중 3인 C와 20대 직장인 F가 온라인 게임하다 친해져 정기적으로 채팅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다 F의 제안으로 직접 만나기로 하였는데, C는 평소에 F가 자신에게 친절하고, 게임 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 만나는 것에 동의하였다. F와 만난 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고, 거기에서 C는 F가 자신의 허벅지와 어깨는 만지는 것을 느꼈으나 싫지 않아 거절 안했다. 극장에서 나온 후 F가 저녁을 산다하여 음식점에 갔고, 거기서 술을 같이 마셨다. C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나서 깨보니 비디오방이었고, F가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C는 F를 밀쳐내면서 거부했고, F는 몇 번 행동을 계속 하려하다 C가 계속 저항하는 것을 보고 중단했다. F가 C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으나 C는 F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비디오방을 혼자 나왔다. 그 때 시각이 새벽 4시 경이었고,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안자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추궁으로 C는 사실대로 이야기했고(술을 마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C가 온라인 게임 중지와, 앞으로 다시는 모르는 남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F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보호할 생각은 안하고 가지고 놀려고 했다고 화를 내면서 이대로 F를 가만 두면 안된다고, 혼이 나야 다시는 안그런다고 이야기하며 상담소에 법적으로 F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

사례4> 지속적인 성폭력피해 : 피해자의 정신적 위축, 수동적인 피해자

A는 부모와 함께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타 지역 대학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된 20살의 여성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속에서 A는 적응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때 같은 과 선배인 K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며, 잘 해주었다. 대학 신입생 모꼬지 때 술을 많이 마신 A를 K가 숙소로 배려해주겠다고 했고, 그 때 K가 같이 숙소로 들어와 좋아한다고 말하며, 강간을 했다. A는 K에 대해 선배로서 좋은 감정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감정은 아니었기에 K의 행동을 거부했으나 다른 사람이 없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K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당하게 되었다.

그 후 K는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고, A는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신은 순결을 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K와 사귀는 데 동의했다. 그때부터 K는 A의 자취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성 관계를 요구했고 A가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감시했으며,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욕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 A 주변의 사람들은 A가 그전과 달리 우울해보인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K와 사귀는 정도만 아는 정도였다. K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 A에게 매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둘만 있을 때만 폭력적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A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K가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A도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없었고, 부모님께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혼자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학교생활을 하다,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에 실려 가면서 부모가 학교를 찾아왔고, A의 자취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하여 K와의 관계와 성폭력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중인 A에게 찾아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K를 고소할 것이라고 했고 A는 K를 다시 보지 않으면 된다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다. 그 후 A의 아버지가 상담소에 전화하여 A는 병원에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자신이 법적으로 대신 고소했는데, 경찰에서는 K와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남녀간의 애정싸움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당 경찰서를 바꾸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5. 나가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도, 성폭력피해자 개인의 치유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역량강화를 실질적으로 높여낼 수 있는 ‘법적 해결’ 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상담/ 지원 현장에서 개개인의 지원자와 피해자(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에 대한 대안들은 더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고민과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래 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 현장과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들 모두에게 스스로를 위한 돌아봄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고 싶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르게 성폭력을 경험한 개인들의 감정, 몸, 대처방안, 인식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 과연 지원자인 ‘나’는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나의 성폭력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인식, 감정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혹은 머물고 있는지), ‘나’의 변화와 ‘피해자(내담자)’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지원과정과 전략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공유하고 싶은 사건지원 Tip



‘법적 해결’을 위한 사건 지원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간에 피해자와 소통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 볼 수 있다. 한 예로 형사소송을 지원하면서는 내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되다가,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에는 관계가 흐지부지 되고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지원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거나, 혹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 지원자나 상담소가 개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과 연장선상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합의 후에 피해자와 어색하게 소통이 끊기면서 상담/지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묘연해지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다른 과제들을 함께 모색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합의나 민사소송 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합의, 민사소송 후 지원자/ 피해자와의 소통 방법, 이후에 남은 과제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 법적 해결과 나의 변화지도 그리기 등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해결’과정에서 생기는 난관 중 또 하나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맥락적 의미나 변화를 수사기관 담당자나 법조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 없는 상황,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던 상황,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성폭력 피해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가 수사과정에서 기억해내는 상황 등에 대해 지원자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이를 수사,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피해 후유증을 극대화하거나, 보호해야 할 수동적인 피해자상을 강조하는 현 지원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 성폭력,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후유증과 사회생활 어려움 등의 보호 담론만을 일방적으로 이용해온 것은 아닌지 지원자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자는 사법기관에 피해자를 소외시키거나 보호 대상화시키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욕구, 피해에 대한 해석들을 의미화하여 의견서, 탄원서 등을 작성,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있도록 격려하여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법정 진술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꽃뱀’ 신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자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들어가며

올해로 4회를 맞은 ‘밤길 되찾기’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밤길 되찾기 홍보물인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화근이었던 것이다

. 야한 옷차림과 정숙치 못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며 야시시한 눈웃음을 발사하고 있는 여성 캐릭터가 밤길 되찾기 홍보용으로는 부적합하며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전에 없이 몇 상담소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후, 잠시 상념에 빠졌던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 ‘밤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길’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할 평등한 권리? 혹은 여성들의 안전한 권리,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그 캐릭터는 어떤 여성을 의미하며 이 여성이 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밤길에 그녀와 같이 혼자서, 게다가 풀어져 있는 옷차림과 자세로 ‘당신’을 게슴츠레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이며 밤길에 나와서는 안 되는 여성인가?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권리는 짧은 치마를 입지 않고 아하게 화장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들에게만 허용되어야 할 권리인가?

밤길을 되찾는다는 슬로건은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일상화된 공포로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사유하지 않은 채 밤길을 외치고 또 다른 규범을 여성에게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한정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일 뿐이다. 문제는 유혹하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 존재 자체가 유혹이라고 여기는 가부장적 시각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그 일은 성폭력상담소에서 각기 어떻게 성폭력 피해여성을 규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소통의 욕구를 자극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꽃뱀’신화와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혹하는 여성, 욕망하는 여성, 위험한 여성은 어떻게 ‘꽃뱀’으로 호명되고 그것을 넘나드는가. 성폭력 상담현장에서 ‘꽃뱀’은 실재인가, 신화인가.

2. 남성 욕망과 공포의 환영, 꽃뱀

꽃뱀. 여성을 상징하는 상투적인 표현인 꽃이라는 단어와 간교함과 교활함, 유혹을 상징하는 뱀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꽃뱀’⁸⁾은 흔히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는 여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칭하는 여성은 실로 다양하다. 가짜 성폭력 피해자, 여성 사기꾼, 고가의 식사와 선물을 요구하는 여성, 심지어는 자신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거절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꽃뱀’이라는 말은 남성에 의해 그 의미가 자유자재로 변형, 변주된다.

한편, ‘꽃뱀’은 남성을 죽음이나 고통 등 치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팜프파탈, 악녀, 요부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다. 팜프파탈은 남성 욕망의 투사물이자 욕망의 위협성을 경고하는 금기로서, 유혹자인 여성을 상징함으로써 남성 욕망의 대가를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남성 판타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남성의 판타지는 현실에서도 재현된다. 남성에게 성폭력피해자는 (당시 그렇게 생각했건, 사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리화했던 간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니, 여관까지 따라왔으니 등등의 이유로 유혹한 여성이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여성이 된다. 더욱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타격을 입힌다는 의미에서 더욱 팜프파탈의 그것과 닮아 있다. 즉, ‘꽃뱀’은 가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비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여성 성폭력 피해 구성의 의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에게 ‘꽃뱀’은 자신과 관계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모든 여성이다. 다음은 ‘꽃뱀’피해가 남성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기사 발췌>

잠든 척 실눈뜨고 남성손길 유인 “딱걸렸어”

서울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2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퇴근 후 가볍게 맥주 한잔을 마신 최씨와 동료들은 회사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다. 뜨끈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최씨 일행은 금세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중략) 꿀맛 같은 단잠에 빠져든지 20분이나 지났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깬 최씨의 눈앞에는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이었다. 그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또래 여성 두명이 함께 최씨를 향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눈을 비비는 최씨에게 그 중 한 여성이 “아저씨, 미쳤어요? 왜 더듬고 난리야?”라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최씨는 엉겁결에 파렴치한으로 몰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8) 꽃뱀 : [명사] 1 <동물> 피부에 알록달록한 빛깔을 가진 뱀 2.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울면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군거리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구경꾼들은 이미 최씨를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된통 걸렸다는 생각이 든 최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동료들을 깨워 정황설명을 했다. 평소 최씨의 성품을 알고 있는 동료들은 적극적으로 최씨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20대 여성의 눈물에 속아 넘어간 상태였다. 상황을 꼭 지켜보던 찜질방 주인은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얼른 경찰서에 신고했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최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렇게 최씨와 동료들, 그리고 세 여자는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 당도하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다자고짜 눈물부터 쏟았다. 그 여성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찜질방에서 여자를 건드릴 수 있는냐"며 "합의고 뭐고 필요 없으니 감방에 집어넣어라"고 호소했다. 이쯤 되면 최씨의 동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최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자포자기 한 최씨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자"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운을 뚫다. 합의는 있을 수 없다던 그 여성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무려 1천만원을 요구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최씨는 흥정을 시도했다. 최씨와 동료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여성은 결국 선심 쓰듯 7백만 원에 합의를 해줬다. 최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우기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이 되버리니 여자들은 참 돈 벌기 쉬운 것 아니냐"며 허탈하게 웃었다. 얼핏 생각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 최씨가 이해가 안갈 수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으면서 이렇다 할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치한 누명에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줬으니 말이다. 그러나 막상 '꽃뱀'에게 걸리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남성의 말은 한날 거짓 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여성의 진술은 곧이곧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 스포츠서울 2007/08/06(일요신문제휴)

실제로 남성은 성폭력에 반대하고 성폭력 사건에 분개하면서도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며 '꽃뱀'에 의한 선량한 남성피해자를 먼저 걱정한다. 특히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은폐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지는 않을지 하는 피해의식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남성들은 그렇게도 집요하게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의 진위여부를 추궁한다.

반면, 여성이 '꽃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성적으로 즐긴다는 혐의이기도 하다. 다른 범죄에서는 범죄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인간은 죽고 싶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물건을 강탈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등)에 반했을 거라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은 성폭력을 당하고 싶을 수 있다' 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다면, 진짜 성폭력 피해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한다.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지 않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사법부는 사실상 '꽃뱀'신화가 실재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꽃뱀' 신화는 여성들에게 위축감을 주며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규정하는데 주저하게 한다. 많은 여성들이 상담에서 “이런 것도 성폭력인가요?”하고 묻는 것은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질문일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 보이지 않는 승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역시 '꽃뱀'에 대한 비난을 내면화하면서 오염되고 비도덕적인 '꽃뱀'과의 경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검열하게 되는 것이다.

3. 여성의 몸과 교환 시스템

'꽃뱀'이 특정 여성을 지칭하는 듯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꽃뱀”이라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여성의 몸이 교환의 대상으로서 자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제적 자본의 장악, 불평등한 노동 시장, 비대칭적 성별 의식, 미디어에 의한 성의 상품화 등이 일상인 이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최고의 자원으로 가꾸어질 것을 요구받는다. 성매매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교환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일 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어떻게 여성의 몸이 어떻게 자본과 교환되는지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낭만으로 위장된 연애 관계에서도, 경제적 집단이자, 정서적 집단인 가족을 만들어내는 결혼계약에서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교환체제에 직면한다. 섹시한 여성의 몸이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반면, 정숙하고 순결한 여성이라는 규범은 ‘임신 가능한, 출산 가능한 몸’으로써 결혼제도 내에서 남성의 자원과 교환된다. 더 우월한 자본을 가진 남성을 만나는 것이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섹시하거나 정숙한 여성이라는 이분화된 이미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거나 ‘청순가련섹시’라는 상호 모순된 이미지를 자신의 몸에 구현시켜야 하는 과제를 요구받는다.

예를 들어, 한 남성과 사귀는 여성이 남성의 일방적인 스킨십에 당황하며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상황은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고 그런’ 여자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과 만난다. 이것은 여성들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성과 사랑이 성폭력과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몸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여성이라는 혐의를 유독 ‘꽃뱀’에 집중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 일상적으로 남성 시선의 대상이자 교환되는 시스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비가시화한다. 남성들은 ‘꽃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불신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꽃뱀'을 폄하, 비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그와 같은 여성이 되지 말 것을 주문, 통제한다. 여성 역시 이러한 명령체제에 순응하지만 ‘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위태로운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 '꽃뱀'은 여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욕망의 모순에서 파생된 기형적인 여성 이미지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이 대상화되는 문화에서 여성이 성적 주체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교환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가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인 여성은 일반적으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자성을 활용한다. 타자는 제한당하지만 힘을 갖기도 하며 남성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은 남성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정희진, 2005). 남성들이 불편한 지점은 바로 여성들이 욕망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협상의 주체가 되는 순간이다. ‘꽃뱀’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 뿐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이라고 할 때, 남성들의 ‘꽃뱀’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강화된다.

4.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 상담현장에서는 ‘꽃뱀’을 만나기 어렵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담소에는 ‘꽃뱀’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지 않으며 여성들은 피해여성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규범 - ‘성폭력피해여성다움’ 또는 ‘피해자화된 여성’ - 을 내면화한다. 그래서인지 상담소에 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아님을 강조하고 무력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담소 입장에서도 그와 같이 더할 나위 없는 피해자였을 때 좀 더 수월한 주장과 지원을 할 수 있기도 하다. 피해자화에 있어서 성폭력상담소도 예외적인 공간은 아닌 것이다.

잠시 앞에 언급했던 기사로 되돌아가보자. 그 기사는 철저히 남성의 시각에서 씌여진 경험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담 현장에서 그와 비슷한 상담 사례를 여성의 입장에서 종종 듣게 된다. 여성들이 부지불식간에 겪는 성추행 피해는 가족 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엠티에서 그리고 길거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을 우리는 ‘꽃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의 해석대로라면 이 여성들은 모두 ‘꽃뱀’이며 그렇다면 성폭력상담소는 ‘꽃뱀’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상담소도 ‘꽃뱀’ 신화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⁹⁾.

현재 성폭력 상담 현장은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함과 동시에 어떻게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가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성적 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성에 대한 주체적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앞에서 얘기한 대상화된 여성 섹슈얼리티의 교환 체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성폭력이라 해석하기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구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남성 시선으로부터는 ‘꽃뱀’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피해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의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 논쟁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와 같은 상담을 접할 때 상담자는 어떤 혼란을 겪고 또 피해자에게 어떤 전략을 구사하도록 요구하는지를 돌아보고자 한다.

9) 예전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했던 사건 중에 피해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1억원을 가해자에게 요구한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취업생이던 이 여성은 자신이 취직한 회사의 사장의 환영 회식에 갔다가 강간 피해를 입었고 처녀막파열 진단서, 여관주인의 진술 녹음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로 구속한 사건이었다. 그때 상담원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판사의 첫 질문은 “상담소를 이용하는 ‘꽃뱀’이 있지 않느냐?”였다고 한다.

5. 생각해보기

[사례1]

18살인 A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와 조건 만남을 합의하고 만났다. 모텔로 들어간 B는 먼저 돈을 요구하는 A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A는 피해 직후 바로 경찰병원으로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나 조건 만남으로 인해 자신도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고소를 망설이며 상담소에 문의하였다.

[사례1]은 성폭력 문제와 함께 성매매 문제가 함께 얹혀 있는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A가 B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A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A는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므로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딸방(손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남성의 강압적인 삽입행위로 인해 성폭력으로 상담을 한 경우에도 성판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에 부딪치게 된다. 이 편견은 성판매 여성은 성적으로 정숙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낙인과 함께 이 여성은 그것이 심지어 폭력일지라도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 성립된다. 상담자 역시 이와 같은 상담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원의 막막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판매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래서 성매매단체로 연계하기도 한다.

- (1) 성판매 여성을 성폭력 피해생존자로 만난 적이 있거나 만난다면, 당신에게 어떤 거부감과 편견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고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2) 만일 [사례 1]의 A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당신이 설정하는 상담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ex : 고소 등 법적 해결, 탈성매매 등)

[사례 2]

여성 C는 우연히 알게된 남성 D와 교제하게 되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C는 D와 사귀면서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다. 평소 결혼 전까지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C였지만 D는 왜 편하게 즐기지 못하며 C를 답답한 여성으로 몰아갔다. C는 그와 같은 심리적 압박감으로 계속되는 D의 성관계 요구를 뿌리치는데 지쳐갔고 결국 반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후에도 D의 일방적인 성관계는 계속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와 같은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C도 소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다. 한편 D는 아직 결혼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D는 C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여성은 결혼이 아니었다면 성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당시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모멸감을 호소하며 자신의 경험도 성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은지, 법적 조치나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였다.

[사례 2]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데이트 강간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데이트 강간은 성립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주장한다. 하지만 통념상 연인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심리적 압박은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이 사례처럼 피해가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남성과 헤어진 이후에 성폭력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 여성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가해자에게 성폭력 혐의를 씌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C에게 있어서 성폭력을 결론짓는 데는 결혼이라는 변수가 작동했다. 즉, 만일 C가 D와 성공적으로 결혼하였다면 성관계가 불쾌했는지언정 성폭력이라고 명명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례 2]는 협상의 실패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는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까지 고민하고 있다.

(1) 당신이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상담했는지 적어보세요.

(2) 당신은 [사례 2]의 C에게 공감과 지지를 한다면 (또는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것이며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사례 3]

E는 노조에서 상근하는 계약직 활동가로 노조 위원장 F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에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다. 상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파악한 사건의 요지는 2년 전 F가 E에게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바디 페인팅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준 것과 최근 F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것이었다. 그런데 진상조사 활동을 하면서 상담자는 성폭력을 둘러싸고 노조 내부의 노선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피해 여성 E는 F의 그와 같은 행위는 넓은 의미로 성희롱 피해이지 않느냐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었고 F는 억울한 속내를 숨기지 않으며 어떻게 성폭력이나며 성폭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됨을 토로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E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편에 선 남성들과 반대편의 남성들의 대결의 장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난감하였다. 이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여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는 것은 마치 어느 한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졌다.

[사례 3]은 한 집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건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둘러싸고 양 측

이 대립되는 양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앞의 두 사례가 ‘외부에서 ‘꽃뱀’이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노골적으로 E를 ‘꽃뱀’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꽃뱀’과 피해 여성이라는 두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현장에 있었던 셈이다. 또한 이 사례는 해당 사건이 과연 성폭력인가 하는 개념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상담소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을 낳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중심주의의 한계를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상담자가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1) (욕설, 일방적 구애 등) 여성이 관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쾌감과 모멸감은 성폭력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면(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2) [사례 3]과 같이 성폭력 사건에 외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 이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성폭력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사례 4]

I는 20여 년 전 6살 무렵부터 약 3년 간 사촌오빠 J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J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I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I를 불러 성추행과 강간을 일삼았으며 절대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로 I를 협박하였다. I는 시간이 흘러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깨달았고 절대 J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유년시절을 빼앗겼다는 슬픔과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J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고 결국 J를 찾아가 과거 성폭력 사건을 따져 묻고 가해자에게 3000만원의 피해보상 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해자인 J는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며 더 큰 소리 쳤고 결국 화가 난 I는 J의 부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였다.

[사례 4]는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사건으로,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메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상황은 매우 유사하였지만 그것은 가해자가 보낸 편지였다. 그 가해자는 자신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난데없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도 하였다. 그 남성은 피해 여성인 사촌여동생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 몇 십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괴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촌여동생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 보상을 안 해줘도 되지 않는지를 질문하였다.

한편 공소시효 지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고정적이고 불변한 경험으로 절대적 피해자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무기력해지거나 분노하게 된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할 몫으로 가슴에 묻기도 하지만 I와 같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보상이나 응징이라도 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의 대부분은 피해가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나위 없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를 응징하려고 하는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삶을 흔들어 놓는 존재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기억나(하)지 않는 오래 된 경험을 현재로 불러오는 피해 여성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배짱으로, 여성을 헐난하고 여성의 의도를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한다.

- [사례 4]의 I와 같이 과거의 성폭력 피해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피해 여성에게 어떻게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표현할지 적어보세요.

'꽃뱀' 논의를 상담 현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총 다섯 개의 상담사례를 통해 성폭력 피해의 의미 구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꽃뱀'의 서사가 아니기도 하다. 이것을 '꽃뱀'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저들의 언어이자 저들의 전략일 뿐이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사례 1), 성폭력

을 도구화한다는 이유로(사례 2),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사례 3), 증거도 없는 성폭력을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사례 4) 가부장적 사회의 불순한 시선은 언제든지 여성의 경험을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여성의 경험을 모두 단일하게 피해자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은 모두 성폭력이다”가 아니라 각자의 맥락에서 성폭력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섹슈얼리티 규범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성폭력 개념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좀 더 다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여성의 언어로 계속 고쳐 써져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성폭력의 문제제기는 성폭력을 넘어 불평등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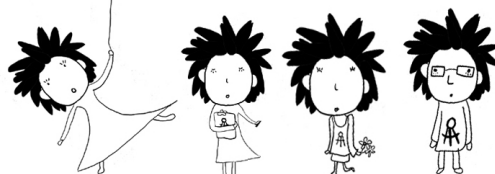
성폭력을 '꽃뱀' 논의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고백하자면 나에게서는 너무 버거운 작업이었다. 줄곧 이야기했듯이 '꽃뱀'은 여성의 언어가 아니라 남성의 언어이다. 게다가 내가 만난 성폭력 사례를 매우 작위적으로 '꽃뱀'과 연결시키는 것 같았고 그것은 왠지 그 여성들을 배반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공감할 수 없었던 사례들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꼬리를 튼 '꽃뱀'이 여성들을 검열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도 하였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는 '꽃뱀'은 남성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현실에서 '꽃뱀'여성을 만나고픈 욕구가 있다. 요리조리 맴시 있게 미끄러져가는 뱀의 동작처럼 가부장적 가치들을 빠져나가는, 그래서 남성에게 포획되지 않는 여성을 '꽃뱀'으로 명명한다면 말이다. 그녀들은 나 역시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고 때로는 나를 분노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들뜨게 할 것 같다. 그러나 '꽃뱀'은 아직은 남성들의 신화에 머물러 있다. '꽃뱀'은 남성의 공포를 자극하지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향한다. '꽃뱀'신화가 남성들의 자세를 고쳐 앉게 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매무시를 가다듬게 하니 말이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무리하는 이 글은 많은 부분 비어있고 깊이 또한 매우 부족하지만 이 글의 모자람을 사람들의 풍부한 논의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시간을 통해,
각자의 상담/사건 지원 방식을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여성주의 상담을 한다는 것의 현실적 의미와 어려움

변해정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느껴지는 그 자체,
그럼에도 이대여성연구원 연구교수라는 현직이 나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외에 나를 설명할 수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다.)

1. 이러한 공부(工夫)를 왜 하는가?

여성주의 상담 슈퍼비전 또는 상담과 운동의 관계 등의 깊이있는 공부를 하는 것은 전문가/장인이 되기 위해서인가?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여성주의 상담은 바로 내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한다/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담은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나누는 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민해야 할 것은 상담하기까지/상담 시/상담 이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이다. 즉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설정, 상담을 하는 ‘내’가 누구이며 상담을 하는 ‘네’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나와 너는 동시에 상담한다. 즉, 각각을 이해하며 서로를 이해한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면만 아는 것일 뿐! 누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도 말한다. 그럼에도 잠시의 착각/착시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면 신기루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 상호 만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단초로서 작동한다.

2. 여성주의 상담의 의미와 방법

(1) 상담(相談-서로 말하기)의 시작

이야기하기(글쓰기): 개인의 이야기 분석-기억의 정치학

- 어떤 것이 기억되고 어떤 것이 기억되지 않는가?
- 어떤 것이 이야기되고 어떤 것이 이야기되지 않는가?
-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 하는가?
-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신을 말하는 것

욕망의 근원(하고 싶다) 그런데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욕망과 현실과의 경합과정이 표현되는 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말하기는 이 사회에서 살고 싶은 의지이다. 이런 과정을 누구로부터 승인받고 싶어한다. 이것이 말하기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은 서술적으로 형상화된 것들을 반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시 형상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성을 이루고 있는 서술적 정체성은 변화와 변화가능성을 삶의 일관성 안에 포함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 구성의 힘을 통해서 확인되는 '서술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다(리퀴르, 1993)

(2) 상담은 상호 자기서사(self-narrative)이다. 자기서사는 활동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자기 경험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서사는 현재의 조건과 관심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해석하고, 또 미래의 전망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개인 경험의 소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축으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여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몸을 매개로 한 육체적인 소통의 과정(Krucks, 1999)을 언어화한 것이다.

(3) 음성언어+육체언어 상호 듣기: 이야기와 함께 얼굴표정, 행동의 변화, 분위기 등의 다양한 표현 등의 맥락도 이해하기

3. 말하기 듣기 해석하기 종결하기

(1) 관계맺기 과정

A 성폭력 피해자	B 교육생인 나	C 상담자
무엇으로 말을 시작하는가?		어떻게 듣기 시작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으로 진입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듣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더 알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더 말해주고 싶은가?
언제 말하기를 종결하는가?		언제 듣기를 종결할 것인가?
이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가? 상대방은 어떠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달라졌는가? 내가 달라졌는가? 더 이상의 관계가 필요한가?

(2) 내가 문제로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문제로 하는 것과의 긴장관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상담한다는 것의 의미
 여성주의 상담지원자와 내담자의 차이
 내가 원하는 방향----내담자가 원하는 방향

예) 10대 청소년 상담
 그녀A가 말한다.
 나B가 듣는다/기록한다/해석한다

다른 사람C가 해석한다.

상담은 AB와 ABC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ABC의 정체성/해석의 차이들에 의해 상담의 내용은 다르다.

→정체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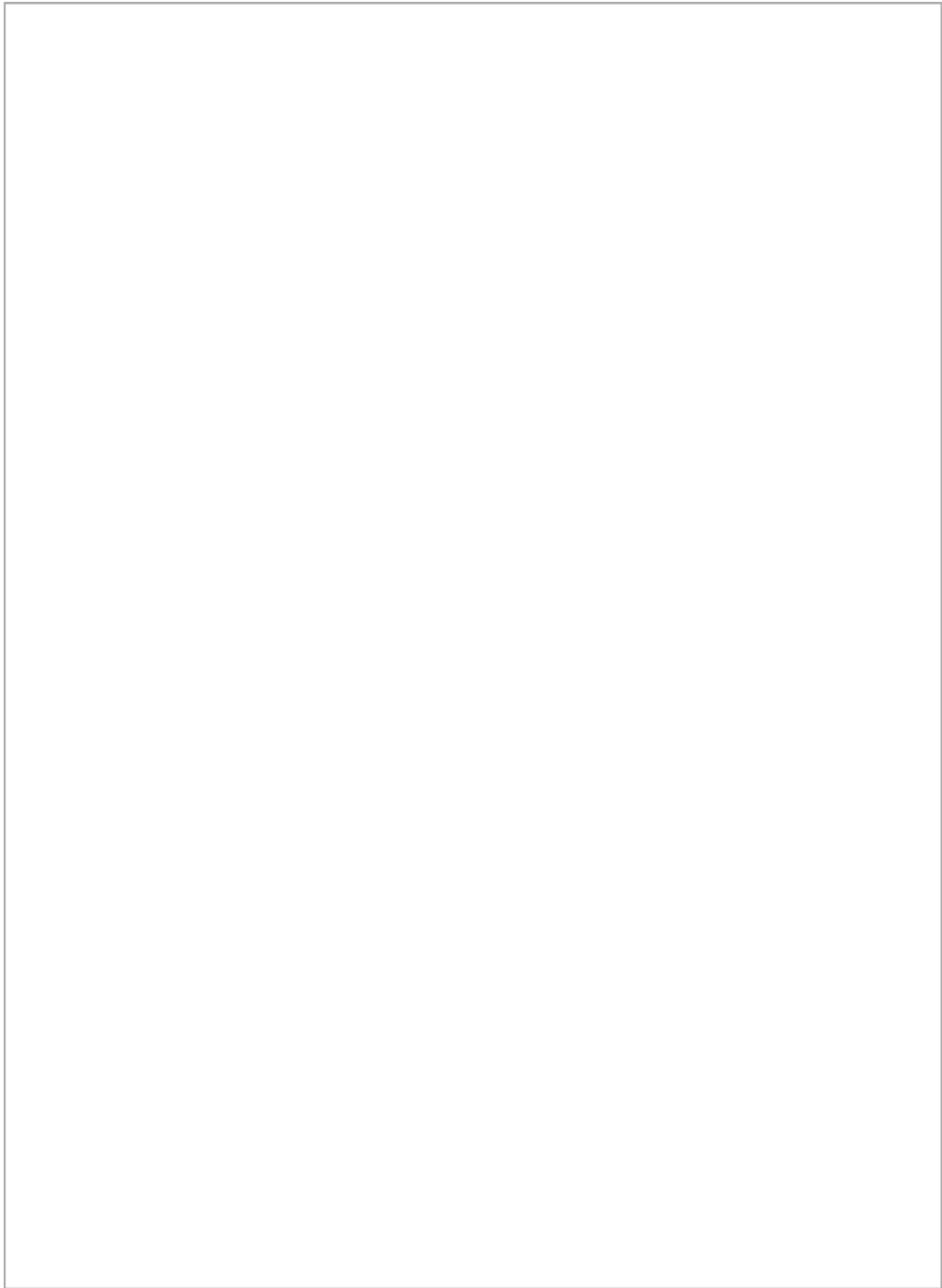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하는 나는 이미 그 가능성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나는 그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즉 선택행위를 하는 나는 이러한 입장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장들은 단순히 나의 의지, 결정, 이론적인 생산물이 아니라 나를 생생한 주체로 생산해내는 권력과 담론의 행렬적 관계, 물질적 관행들, 제도적 협정들의 경합으로 완전히 나에게 체화되어 있는 조직적 원리들이다. 즉 나는 성별, 섹슈얼리티, 계층, 학력, 인종/민족, 국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가치, 통념, 역할 등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는 자기성의 표현이다.

(3) 종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만 듣고 싶을 때

전화상담에서 종결 주체는 말하는 자(전화하는 자)라고 알고 있지만 전화를 받는 자의 느낌은 이미 전달되고 있다. 더 이상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때는 상담은 종결된다. 직업으로 의무로 상담하는 것은 또 다른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고민해야 한다.

종결의 준비: 필요한 정보 이상의 치유의 말하기로 넘어갈 때 상호 전제는 말하는 자의 정체성이 다중적이며 언제든지 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종결의 가능성이 있다. 즉 말하는 자를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억압자 피억압자/피해자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피해’에 대한 재의미화가 일어나는 장소로 간주해야 한다. ‘여성’임을 수행하는 자/성폭력을 경험한 자는 맥락에 따라 여성/피해가 무엇인가/의미하는가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며 이런 의미에서 고양된 의미의 행위자를 조건지우고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익힌다. 상담은 언제나 정체성의 경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합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 녀들은 미래에 있을 주장들/변화들을 미리 포섭시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원히 열려진 채 영원히 겨루면서 영원히 임시의 것으로 봐 둘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또 다른 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 전에 그렇게 의미화하는 맥락을 상대화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4. 상담사례연구



5. 생각해보기

(1) 피해구성의 언어들을 다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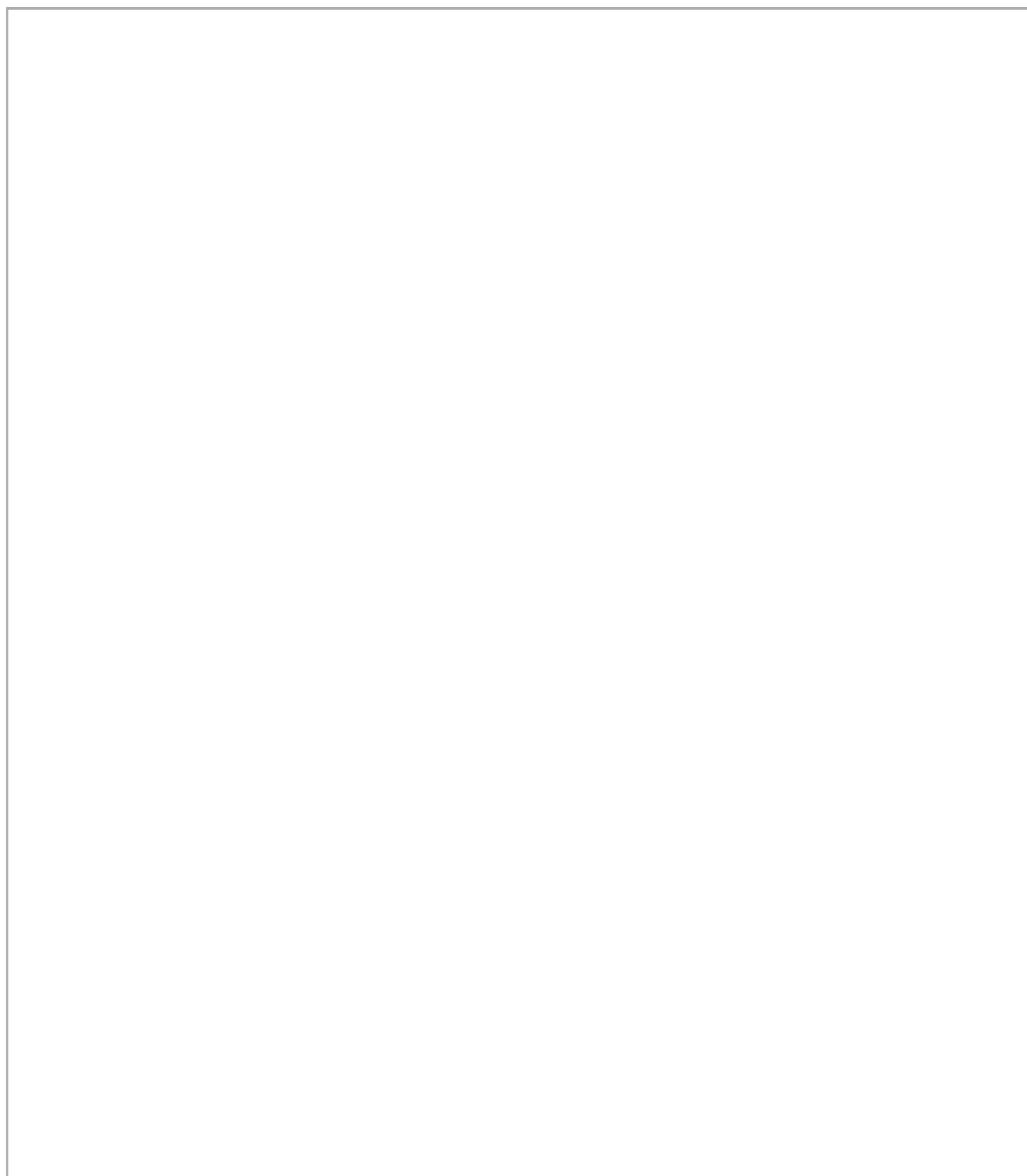
예) 다가왔다. 당했다. 저항하다가 그만히 있었다. 포기했다. 씻어냈다. 참고 또 참았다. 왜 참아야하지? 왜 하필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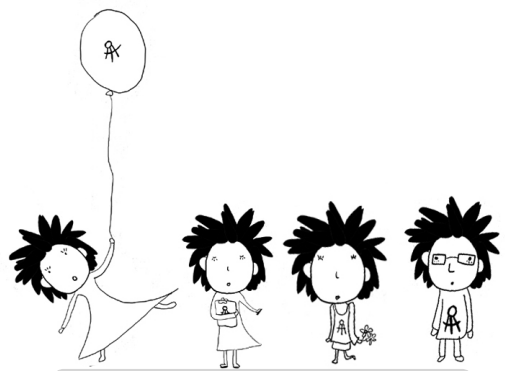
(2) 나는 성폭력 상담전화를 받을 때 상담의 내용이 무엇일 거라고 예측하는가?

(3) 상담내용을 그대로 인용,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담비밀보장의 원칙부터 다시 고려해야 한다. 여성주의 상담에서 비밀 보장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

김미랑 | 서강대학교 양성평등 성상담실 상담교수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상담을 위한 역량 강화

집단 상담과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 체험, 치유 글쓰기를 통해
이후 성폭력 상담 활동을 위한 힘을 키웁니다.

집단상담의 정의와 목표

김미랑 | 서강대학교 양성평등 성상담실 상담교수

1. 집단상담의 정의

- (1) 집단상담의 대상은 비교적 정상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 강조점이 치료보다는 성장과 적응
- (2)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 개인 상담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 성격 역동에 대한 이해, 집단역동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형성 발생의 능력 등을 갖춘 사람
- (3) 집단의 분위기는 신뢰롭고 수용적이어야 함. 집단원 상호간의 무조건적 수용은 필수 조건-있는 그대로의 자기 노출, 자기 발견, 자신의 느낌과 행동 수용 등 가능
- (4) 집단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 계속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응집성을 형성·발전시키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의미 경험

--> 집단상담은 작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 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동을 토대로 하여 신뢰롭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2. 집단상담의 목표

- (1) 감정의 바람직한 표현, 발산의 촉진
- (2) 자기 문제(관심사)에의 직면, 해결의 권장
- (3) 집단생활에서 자아개념의 강화(또는 자기표현의 향상), 협동심의 향상
- (4)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

-개인성장 집단의 목표

- ①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
- ② 자기수용(self-acceptance): 이해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 ③ 자기개방(self-disclosure):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임
- ④ 자기주장(self-assertiveness):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는 학습된 행동

3. 효과적인 집단상담 구성원의 조건

- (1) 반드시 도움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
- (2) 자기의 관심사나 문제를 기꺼이 말해야 한다.
- (3) 집단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4. 집단상담의 과정

- (1) 참여단계
- (2) 과도적 단계
- (3) 작업단계
- (4) 종결단계

5. 집단상담 참여 방법 (“김명권 박사의 집단상담 자료” 중에서)

- (1) 언제나 자신의 ‘지금-여기 here & now ’에서의 마음을 찾는다. 살아있는 한 마음은 움직이고 흘러간다. 지금-여기를 잘 느끼면 그 안에 자기 삶의 중심 주제들이 들어있다.
- (2) 자신의 마음을 평가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한다. 평가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물론 그 과정까지도 표현한다.
- (3) 이기적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너무나 남의 기대대로 살아왔다. 따라서 이번만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이 집단을 이용해보자. 정말로 자신과 집단원들에게 정직해본다.
- (4) 생각보다는 느낌이나 감정 쪽에 주의를 더 기울여보고 느낌을 표현한다.
- (5) 말이 길어질 때 길어지는 의도를 자각해본다.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느낌의 배경은 최대한 짧게!

(6) 눈물을 반겨라. 눈물에 충실해라. 두려워말고, 눈물이 날 때는 그 순간의 신체적 정서적 느낌과 하나가 되라.

(7)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때 두려우면 두려움부터 표현한다. 언제나 자신의 두려움에 주목하고 표현한다.

(8) 상대방을 향해 직접 대화체로 말하도록 한다. 상대방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9) 쉬는 시간에도 평소에 친한 집단원들과 하위 집단을 형성하여 집단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집단에 관한 내용은 전체 집단원이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10) 가능하면 평소에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새로운 행동들을 실험해본다. 변화에는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다.

(11) 언어는 물론 비언적 메시지(표정, 목소리, 신체동작 등)에 유의한다.

(12) 집단과정 중엔 핸드폰 전원을 끈다. 집단기간 중에 오직 집단에만 마음을 모아본다. 바깥일은 미리 정리하고 참여한다.

6. 집단상담 비밀보장을 위한 약속

(1) 나는 집단에서의 깨달음과 학습한 것은 타인에게 말해도, 집단원의 인격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여 상담 중에 나온 사적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도 아님을 인정합니다. sign_____.

(2) 자신과 타인을 심하게 해치는 내용에 대해선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안전을 위해 리더나 다른 집단원이 비밀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sign_____.

여성주의 집단상담

박애선 |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1. 여성주의 집단상담(Feminist Group Counseling)

여성주의(feminism)의 관점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인식론적 관점이다. 1960년대 여권운동을 시초로 하여 이 시기의 여성들은 한목소리로 전통적 여성역할의 한계와 제한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초부터 CR (Consciousness-raising group)을 중심으로 기존의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의 심리치료에 내재된 가부장적인 분위기, 즉 전문가인 남성 상담자가 문제를 가진 여성 내담자를 치료하는데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남성내담자들이 가진 가치 기준이나 성역할에 대한 이해의 잣대로 보면 여성내담자들이 실제보다 더 병리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Enns(1993)는 미래의 여성주의 목표는 “여성들 간의 다양성, 자기-발견, 자기-결정 등의 인식과 사회의 집단주의적 변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참조틀의 유지와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주의 집단상담에서는 여성이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사회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자기 자신의 모습(true self)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개인 내담자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사회전체의 변화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여성의 권한, 존엄, 자기-충족, 평등 등을 찾는 것이다.

둘째, 치료목표는 협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가치를 융합시키는 것이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관계변화, 사회제도의 개혁, 여성의 성과 관련된 여성의 결정권과 창조적 결정권의 증가 등이다.

넷째, 치료목표는 사회관계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성주의 집단상담에는 여성자신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원리와 기법들이 있다.

2.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원리

-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
- (2) 평등한 관계
- (3) 여성적 가치로 평가하기

3.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기법

(1) 성역할분석 : 성역할 특성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며 심리적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내담자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직접·간접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모델이 된) 성역할 메시지를 확인하게 하여 현재 자신의 성역할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들을 알게 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의식무의식적인 자기 말(self-talk)의 형태가 외적 메시지를 어떻게 내재화 시키는지를 알게 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으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가를 알게 된다.

(2) 힘의 분석 : 힘의 분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과 내담자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데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이고 개인적인 자원과 무능한 방법을 통해 힘을 발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들이 힘을 발휘했던 양식을 알아보고, 그러한 양식에 맞는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3) 주장훈련 : 주장훈련은 여성들이 감정의 표현, 불안과 공포의 감소, 신념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행동발달을 통하여 그들의 인간관계 기술의 부족함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왔다. 여성들을 위한 주장훈련 프로그램의 가정은 일단 여성들을 교육시키면 변화에 대한 내적인 장애를 극복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 부정적인 사회화 과정에 대해 직면할 것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본다.

(4) 의식향상훈련 : 의식향상훈련은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토의하는 것으로 토의과정에서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생활에서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에서 여성의 힘의 위치가 상승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 훈련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여성들이 함께 공통점을 나누고, 사회변화에 맞게 여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비록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훈련의 내용은 인지적인 것에서부터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 까지를 나눈다.

(5) 계몽적 전략 :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과정을 계몽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

는데, 내담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상담자의 이론적 방향과 상담전략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결정함으로써 평등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힘을 증가시킨다. 또한 내담자에게 행동목록을 증가시키고 기법이나 의사소통 기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6) 독서요법 :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된 책이나 기사들을 읽음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정형화로부터 재사회화되고 남녀차별주의에 대해 배우고 또한 생활 대처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내담자는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상담자와의 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7) 재구성 : 상담자가 개인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담자의 참조체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문제를 대인간의 문제에서 개인 내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재구성은 대인간이나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재명명 : 내담자의 행동 또는 특성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상담의 중재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대개 부정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여성주의 시각의 원리에 의한 가치와 관련해서 보면, 내담자들은 남성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진 자신들의 약한 힘에 대해서 재명명하도록 배운다.

4. 여성주의 상담 모형

1 단계 : 내담자 특성 파악

(1) 내담자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단계수준 이해.

(2) 여성성과 남성성

2 단계 : 내담자 원함 - 누가 원하는 것인가?

3 단계 : 전 행동 탐색하기(현재행동에 초점 맞추기)

4 단계 : 자기평가 -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5 단계 : 계획하기 -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성역할 특성으로 구성하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¹⁰⁾

권해수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1.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은 성폭력 지원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폭력 지원자들이 서로 공통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와 위로를 해 주는 새로운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고통과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소외감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지지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감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의 실제

(1) 시작의 시간

개요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집단구성원들은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집단진행자의 첫 번째 과업은 집단상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주면서 참여자들이 새로운 형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신청 당시 혹은 사전 면담을 통하여 집단상담 참여 동기 및 희망, 바램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도입 회기에서 참여자의 욕구와 바램들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목표

- ① 집단상담의 목표, 운영 방식을 이해한다.
- ② 참여자들이 다른 집단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10) 이 글은 본 교육에서 이루어질 집단상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2) 자기 탐색 - 내 안의 나, 네 안의 너

개요

자신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한 후, 자신의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자 한다. 자신의 현재 감정과 생활상태, 그리고 현재에 영향을 미쳤던 과거, 앞으로 희망하고 기대하는, 한편으로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목표

- ① 자기 개방을 통하여 참여자의 내면세계를 알게 되어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② 자기 이해 및 타인 이해 과정을 통하여 다음에 진행될 성폭력 사건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인다.

(3) 내 마음의 경계선

개요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된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성폭력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설정한 물리적인 경계를 침범한 행위이다. 성폭력의 결과 어떤 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인지, 그리고 자신의 물리적인 경계가 어디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장의 주제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물리적인 경계를 찾아내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목표

- ① 개인마다 다른 사람의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personal space)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는가 아닌가에 따라 개인의 안녕과 태도가 달라짐을 이해한다.
- ② 개인 공간을 침범 당했을 때 자신이 취한 행동, 생각, 감정들을 이해한다.

(5) 자기 위로 연습

개요

자기 위로 능력(self-soothing ability)은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Moser, 1991).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편안하게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들을 잘 모른다. 이번 회기는 다소 편안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덜 파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표

- ① 자기 내면에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 ②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③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절차를 찾을 수 있다.

(6) 내 인생의 징검다리

개요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를 죽일 생각만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생각에만 묶여 있다면 자신의 삶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제는 애벌레에서 알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야 한다. 생존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성폭력이 인생의 한 지점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삶의 전체가 아닌 것이다. 단지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나에겐 더 많은 과거가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미래가 있다. 과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면,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내가 설계하는 것이다.

목표

- ① 생애사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조망한다.
- ② 미래를 향한 삶의 설계도를 그려본다.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체험

임미화 | 경희튼튼태권도 관장

■ 목적 : 성폭력피해자 상담 시 운동의 즐거움을 통해 자신의 몸과 행동영역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자기방어훈련을 통한 기술습득 및 자신감회복으로 차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제고해본다.

1. 명상(5") - 운동에 대한 각자의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함.
2. 준비운동(15") - 본 운동에 앞서 관절의 가동범위를 극대화 시켜 상해예방
; 기본준비운동, 스트레칭
3. 기본체력훈련(25") - 개인체력훈련, 1:1 짝 훈련, 팀 훈련
놀이형식의 운동으로 몸 움직임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느끼지 않는 가운데 체력을 강화시킴.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고 힘을 느껴보며 안 쓰던 근육 활용을 통해 숨어있는 힘을 발견함.
순발력, 민첩성을 필요로 하는 팀별게임을 통해 기초체력의 필요성을 느껴본다.
Game - 4인1조 꼬리뺏기.
4. 휴식(5")
5. 자기방어법 배우기(25") - 급소알기. 상황에 따른 자기방어법 반복연습
6. 자기방어 실전달리기(15") - 1:1 짝지어 치한과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며 빠져나오는 법을 연습한다.
7. 정리운동(10") -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의 정비와 유연성향상,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

■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방어법

1. 기억하기

- (1) 효과적인 공격부위 및 급소 : 성대, 턱(밑에서 위로 올려치기), 낭심
- (2) 시선처리 :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더욱 응시하라.
공격 시 눈이 먼저 상대를 가격한다고 생각하라.
시선은 얼굴의 작은 점을 가격한다고 생각하라. - 집중하여 바라보라
- (3) 기합넣기 : 기합은 자신감과 의지의 표현이다.

2. 실전 연습

■ 손목을 잡혔을 때

(앞으로 걸어가는데 치한이 왼쪽에서 다가와 오른손으로 왼 손목을 잡을 때)

- ① 손목을 비틀며 뺀다(이때 몸 전체를 비틀며 뺀다는 생각으로)
- ② 빼고 도망간다(이미 치한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

■ 어깨를 잡혔을 때

(앞으로 걸어가는데 치한이 왼쪽에서 다가와 오른손으로 왼쪽어깨를 잡을 때)

- ① 오른발을 몸 앞쪽으로 돌리며 치한의 상대부위를 팔 전체로 휘두르며 공격(치한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한의 2차 공격을 감안하여 오른발로 몸 쪽 이동 공격이 다른 공격법보다 유리하다)

■ 어깨동무할 때

(앞으로 걸어가는데 치한이 왼쪽에서 다가와 오른손으로 오른쪽어깨를 감싸 안을 때)

- ① 왼손으로 치한의 오른손을 강하게 눌러 잡고 상체를 숙이며 뒤로 빠져 치한의 손목을 꺾음)

■ 뒤에서 안았을 때

- ① 주저앉으며 팔꿈치를 벌려 팔을 자유롭게 한 뒤 뒤통수로 상대의 안면을 강하게 공격

■ 벽에 밀쳐 양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 때

- ① 어깨를 빼려하지 말고 허리를 돌린다고 생각하며 한쪽 어깨만 뺀다.
- ② 팔꿈치를 들어 상대방의 팔을 내려친 후 급소공격.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¹¹⁾

김민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이름의 프로그램, 강의, 프로젝트를 진행한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¹²⁾ 그동안 가이드북 1권, 프로그램 북 1편을 발간하고, 캠프 2회, 주말도장 2차례, 월례포럼 2회 개최, 기고 및 특강, 강의 50여회를 진행하였는데¹³⁾, 본 상담소의 새로운 대표활동으로 인식된 단계는 아직 아니다. 자기방어훈련에 대한 의문풀이와 토론은 우리 상담소 안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자기방어훈련은, 시간에 따라 몸훈련을 진행해온 개체들의 시간에 따른 증언에 의해 그 의의와 내용, 효력이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 자기방어훈련은 소개되어야 할 단계의 운동인 동시에, 시작한 사람들의 새로운 몸의 깨달음과 경험을 언어화해야 할 단계에 있기도 하다.

여성주의 활동가들에게 자기방어훈련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의의, 반성폭력 상담소의 새로운 대중만남으로서의 의의, 여성주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함께 토론해주시기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과연 3년간의 자기방어훈련팀 활동과 그간의 몸과 마음의 깨달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떨린다. 실은 여성주의 활동가들과 함께 몸훈련의 신나고 광활한 영역으로 지금부터 뛰어들어갔으면 좋겠다. 몸의 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글로 표현하고 소개한다는 것은 다소 낯선스이거나 한계를 내포한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운동을 글이나 말로 접하고, 머리로 이해, 납득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spirit이 발동하고, spirit이 서면 몸이 막 움직여지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여성주의 활동가들을 통해 많이 보았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11) 이 글은 한국여성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2) 90년대 대학가에서는 여성학 강사가 진행하는 여대생 대상의 '호신의 이론과 실제' 수업이 있었다. 여성운동단체 활동가가 진행하는 '호신술 특강'도 있었다. 그러나 운동의 새로운 기조로 제안하고 여성주의에 입각한 훈련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화했다는 의미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사로 기술한다.

13)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2004,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한국성폭력상담소 11월 월례포럼 -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방어훈련, 2004, 「2005년 으랏차차 걸파워훈련 주말도장 - 날아치기」, 2005,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2005걸파워캠프 - 으랏차차 쓰너본색, 감춰온 힘을 드러내다」, 2005,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편」, 2005, 한국성폭력상담소 1월 월례포럼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씨실과 날실, 2006, 「2006걸파워캠프 - 해수욕장몸캠프」, 2006, 복권기금, 「2006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주말도장 -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자유자재로」, 2006, 복권기금, 이외 초등학생~성인 일반대상, 대학내 특강, 강좌, 여성단체 내부 강좌, 성교육 대체 강의, 중고등교 CA수업 등 45여회, 단체소식지, 대학원신문, 교육잡지 등 기고 6-7여회

1.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란 무엇인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어떤 종류의 외부자극을 나-여성에 대한 공격, 싸움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고양하고, 실제적인 몸의 반격능력(언어적-비언어적)을 함양하는 훈련이다. 자기방어훈련이 호신술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기존의 호신술과는 다르지만, 기존의 호신술에 대해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질문의 단순함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살아온/살아가던 한 여성인 존재가 호신술을 습득하기를 결심하고 연습하고 몸에 익히고 그것을 삶에서 활용하기까지는 많은 심리적, 환경적, 관계적, 몸적 싸움을 거쳐야 가능하다. 자기방어훈련을 호신술의 키워드로 보자면, 여성인 어떤 존재가 호신술을 다루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 필요를 느끼게 되는 과정, 몸훈련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 실전의 싸움을 겪고 벌이는 과정, 훈련이 효력을 발휘하는 지점, 새로운 갈등을 만나게 되는 과정, 그 지점에서 또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편적인 남성이 겪는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통찰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과정을 쪼개어 프로그램으로 설계한다.¹⁴⁾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 원리로 진행된다.

(1) ‘공격, 싸움’으로 규정하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외부 자극을 ‘공격, 싸움’으로 규정하자. ‘에이, 아니겠지’ 라고 나의 느낌을 의심하고 포기하던 것에서 ‘당신의 느낌을 믿어라’ 로 이동. ‘성폭력’의 개념과 다르게 성적인 부위의 정의, 수치심, 고통 등으로 누군가에게 승인받는 과정은 없다. 작은 불쾌감, 설명할 수 없는 위험신호, 몸의 반응, 반격태세, 싸움태세를 긍정하자.

또한 ‘(성적)폭력’은 절대 당하면 안되는 일생일대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살면서 무수히 만나게 되는 투쟁이 필요한 현실이다. 나는 살면서 무수한 싸움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다. 싸움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나의 능력도 살면서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피해를 겪는 것이 나 선택이겠다’ ‘다음 싸움에서는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해봐야지’ 이 모두 싸움자의 판단이며 선택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14) 이러한 점은 자기방어훈련이 기존의 호신술과 맞닿아있으면서도 다른 지점이다. 자기방어훈련 주말 도장의 강사로 초빙되는 기존 호신술, 무술 지도자 여성들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프로그램, 과정들을 매우 낯설어하고 그것에 놀란다. 호신술 도장을 찾는 여성들의 욕구와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조건과 과정에 대해서 지식과 통찰이 없는 호신술, 무술 지도자들은 여성수련생에게 자기모순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건 배워서 뭐하려고요?” “배워도 안되요” “여자가 그런 근육 생겨서 뭐하나?” “그런 건 안 배워도 됩니다”

(2) 내 몸의 능력? 몸의 역사 복원하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답은 물론! 여성인 나라서 싸움에서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싸움의 승세는 마음에서 갈음된다. 마음 속 싸움의 크기를 키우자!

몸의 능력은 있는가? 여성으로서 내 몸이 자라온 과정을 성찰해보자. 여성스러움이라는 규범은 몸의 움직임을 줄이고 신체 크기도 축소시켰다. 2차 성장 이전, 어린 시절 내 몸의 활동과 움직임을 기억해보자. 몸은 변형, 변화는 가능하다. 위축되어 있는 몸의 습관을 관찰하고 다른 몸의 움직임을 연습하자.

성별 규범은 성폭력의 위험을 강조할 때도 이에 대해 남성에게 안전을 의탁하라고 가르쳐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스러움의 자원을 버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지를 얻기 힘들거나, 나에게도 귀찮고 힘든 일로 느껴질 수 있다. 나와 다른 여성의 몸-행위를 ‘멋있다’고 모델화할 수 있는 지지집단을 꾸리자. 또한 규범에 의해 감시받는 것과 나의 자발적인 욕구 사이의 경계도 모호하다. 규범과 관계하는 나의 욕구를 파악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여/성)폭력의 매커니즘 들여다보기, 반격의 시나리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적공격 -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 등 - 을 보면 상대방을 어떤 능동적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해내용이 많다. 상대-가해자의 시나리오를 알아. ‘반격불가능한 여성’을 상정하고 시작된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으로 (빠르게) 인식하기, 사과를 요구하기, 수치스러워하지 않기, 존대말-배려양식 버리기, 신고하기, 가해자/가해(피해)사실 공유하기부터가 효과적인 반격이 될 때도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반격법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자. 나만의 무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어적인 반격도 몸에 익도록 하나씩 가져보자.

시나리오를 뒤집는 반격, 묵인하지 않는 나의 실천은 ‘반격불가능한 여성’을 상정했던 공격, (성적)공격의 관습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다. 나를 위한 반격은 강간 문화의 계산법을 뒤집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

(4) 몸의 감각, 싸움에 대한 감각 키우기

시선, 소리, 몸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주변 공간 및 조건에 대한 감각 역시 몸의 능력에 포함된다. 시선받기에 익숙한 여성스러운 몸으로부터 시선 보내기-쏘기를 연습해보자. 소리 역시 크고 작고 길고 짧고 굵고 높은 다양한 소리를 다루어보자. 운동장 축구 등을 통해 공간에 대한 감각, 주변 조건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감각을 훈련하자.

몸을 부딪치는 작은 경기, 게임 등을 통해 몸을 부딪혔을 때의 기운을 느껴보자. 내 몸은 승부욕을 즐기나? 즐기지는 않으나 할 만하다고 느끼나? 즐기고 더 열망하나? 부딪히거나 승부를 다루어야 하는 순간에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상대에게 미안해하지는 않는가?

어떤 상황을 싸움으로 인식했을 때 온 몸에 열기에 들어치는 순간을 느껴보자. 몸의 힘은 절대적인 수치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100이 되기도 0이 되기도 하는, 상대적인 힘의 들고 남을 느껴보고 인위적으로 조절해보며 감각을 익히자. 100이 되거나 0으로 만드는 속도가 점점 단축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5) 몸을 이용한 반격 연습, 기술 훈련

몸을 통한 반격은 내 온 힘을 다 투여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중심과 허점을 읽고, 중심을 뺏고 빈 구석을 치고 들어가는 원리가 있다. 상대의 움직임에 그대로 흘러보내서 넘어뜨리는 방법,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쓰러뜨리는 방법 등을 훈련하자.

내 힘 역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힘이 다른 부위를 파악하고 속도와 방향을 달리해 보면서 연습하자. 가장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나의 신체적 공격법은 무엇이라 도출되는가? 상황에 따라 상대의 자유로운 허점과 나의 자유로운 공격가능 부위를 파악해야 한다. 공격 시점을 판단하는 것, 공격 이후 다른 행동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실전에 가까운 대련을 통해 몸으로 감각을 익혀야 한다.

(6) 지속적인 연구와 몸과 마음의 성장

기본적인 근육량도 필요한 부분이다. 몸이 항상 자유롭게 움직이고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도록 체력단련을 지속하자.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상태를 평소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몸과 마음이 싸움으로 인식하는 공격의 수준은 점차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 나의 관심사는 어떤 타인과의 싸움과 반격의 수준이 아니라, 내 몸의 확장과 심화, 성장이 될 지도 모른다. 몸이 더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고 싶어 도전하고, 더 유연하고 더 강하며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나만의 훈련계획이 생기는 것이다. 그 때의 즐거움과 짜릿함은 시작했을 때의 몸의 감각, 마음의 목표와 비교하여 어느 방향, 어느 지점에 가 있을 것인가?

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여백, 새로운 가능성

자기방어훈련은 몸-훈련 과정이 시간에 따라 진행되면서, 애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지점들을 생산하는 것 같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처음에 어떤 틀 속에서 고안되었거나 인식, 평가된 면이 있다. 예컨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특정 형태의 ‘강인한 몸’을 상징하고 목표화한다, ‘남성적인 폭력’의 방식을 답습한다, 대결, 분노, 싸움의 구도에 항상 긴장상태로 놓이고 갇히게 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기방어훈련의 과정은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교조를 벗어나 흘러가는 것 같다.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추동하고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이끌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의 지점, 깨

달음과 기쁨의 지점, 해방감과 고민의 지점은 예상할 수 없이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다. 경험자들의 증언은 자기방어훈련의 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강해진다는 의미가 각자로부터 사유되고 재정의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강해진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련을 하고 나서 느낌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몸훈련과 대련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감정과 깨달음을 털어놓는다.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부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마음,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도 제압당하는 것도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내 의지로 선택했고, 이제는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 내게 두려움이 많구나, 내가 생각보다 힘이 있구나, 나에게 예전 경험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잡아가보고 있었구나, 등의 깨달음 등의 깨달음. 나에게 대해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강함’의 의미도 세분화된다. 몸이 변화하면서 ‘강함’에 대한 필요가 변화하듯이 말이다.

두 번째는, 몸은 긴장되고 경직된 싸움을 지나 유희와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고정화된 싸움의 모형, 승리와 패배의 구도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복하는 법을, 전복하는 순간을 꿈꾸고 구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규범적인 몸을 놓아버렸을 때, 진중하게 땀흘려 훈련하는 몸훈련은 바닥에서 구르고 크게 웃고, 큰 소리로 떠들고 표정과 몸동작을 헝크러뜨려 상대를 웃기는 유희를 동반하는 것을 경험한다. 상대의 여성비하적 욕설에 상처 받았던 경험을 나누고는 전혀 새로운 발음과 뜻을 지닌 욕을 개발하면서 즐거움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¹⁵⁾ 정권을 날리고 옆차기로 상대를 물리치는 싸움에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는 상대의 귀와 입술을 잡아 당겨서 상대는 난감하고 주위 사람들은 즐겁고 나는 흐뭇한 싸움을 해내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놀이와 즐거움을 기획하게 된 몸은 ‘방어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가둘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방어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결과 중 하나일 터.

세 번째는, 분노를 경험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 여성들이 공격, 폭력으로 인식하고 자기 느낌을 수감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지난하고 분노를 표출할 대상과 방법이 보이지 않고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절망하고 분노하는 기운이 자신을 오래 해하던 방식에서, 싸움으로 인식하는데 1-2초, 상황을 파악하고 싸움을 시뮬레이션하고 행동여부를 판단하는데 2-3초, 행동! 아니면 넘기기. 끝. 몸이 확 싸움을 느끼고 힘이 들어챘다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상황이 넘어가면 싸움모드를 획 해제하는 방식은, 내 안의 분노의 매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운영되게 한다. 어떤 사람이 한번은 싸움이 끝나고 몇 시간 뒤 문득 놀랐다. 손이나 심장 떨리는 것도 전혀 없었고 싸웠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다. 반격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평화가 사라지고 싸움의 기운이 확산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새로운 확 분노- 획 해제의 매커니즘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15) 여성비하적인 내용이 많은 기존의 욕을 버리고, 새로운 니만의 욕을 만들고 연습해보는 프로그램. 만약 내가 쌍 자음과 ㅂ모음, ‘가’ 음가 등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조합해 “이 쓰가마야!” 등의 욕을 만들 수 있다. 뜻이 뭐냐고? 굳이 설명할 필요없다. 상대가 욕이라고 알아들을 것이다. 표정과 음량, 억양 등이 있잖은가.

3. 반성폭력 상담소 운동의 새로운 도전

성폭력 상담소는 남성중심주의의 가부장제에 배신감과 상처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거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여성들의 경험은 무척 다양하다. 욕구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그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와 전면적으로 만나고 함께 하기에는 성폭력 상담소는 자기 제약이 많은 공간이기도 하다. 피해자 여성들의 분노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와 장치 마련에 매진했던 상담소는 이제 도리어 법적으로 승인된 ‘성폭력’ 개념에 의해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분류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고, 피해자들의 욕구를 지레 먼저 법적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로 한정하여 상담하는 현실이 되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 포괄하는 내용과 여성 주체를 바라보고 함께 하는 방식은, 현재의 상담현장이 필요로 하는 좀 더 다른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맥락과 욕구를 숨기고 ‘피해자화’를 자처하면서 상담소를 찾은 여성에게, 여성운동은 성폭력의 법적 개념과 승인의 기준을 넘어 당신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와 만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하자. 상담소를 찾은 피해 경험자에게 지지와 공감, 정당화 외의 새로운 메시지와 해석틀을 제안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한 새로운 즐거움과 욕구의 세계로 안내하자. 혹은 상담소를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한 여성들과, 기존의 성폭력 개념을 넘나들며 현실의 유치함, 공포스러움, 분노스러움 등을 해석하고 여성의 새로운 행위성을 연구하고 모의작당하고, 여성들의 새로운 경향과 움직임을 고무하고 지지하자.

우리 상담소의 경우는 법제정 개정 운동, 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기도 한데¹⁶⁾, 이러한 역할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상담현장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들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의 비중이 거의 없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인 지위는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법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꾸준한 이슈로 다뤄져 오고 있지만 여성들에게 어떤 내용의 권력을, 어떤 형태의 힘을 주었는가? 상담소의 기존 역할이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고, 정부의 직접 운영 형태로 흡수되는 안도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운동단체로서 상담운동을 해왔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구체적인 여성들과 함께하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상담소에서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여성들이 성장하는 것,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공포를 학습하는 여성들이 인식이 확장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 새로운 힘을 얻고, 다른 몸과 다른 즐거움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 여성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 성폭력적 사회의 균열이 시작되는 것.

16) 2000년대에 신설되어 지역에 안착된 150여개 전국성폭력상담소에 비하여, 서울지역에 있는, 7년 이상된 상담소의 경우 본 상담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인다.

4. 자기방어훈련의 과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여성주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자를 대상으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공식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소망하고 있는 과제다.

명칭의 문제도 있다. 처음 ‘호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몸을 지킨다’는 뜻풀이가 과거 은장도형 호신술과 연결되는 감이 많아 ‘자기방어’로 바꾸게 되었다. 공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연막을 치기 위해 ‘방어’를 내걸고, 방어의 목적어는 ‘몸’에서 ‘자기’로 바뀌었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훈련’, 세계관과 해석틀의 기초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주의’를 붙인다. 그리하여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그러나 고정화된 공격-반격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다양한 임파워먼트의 경험과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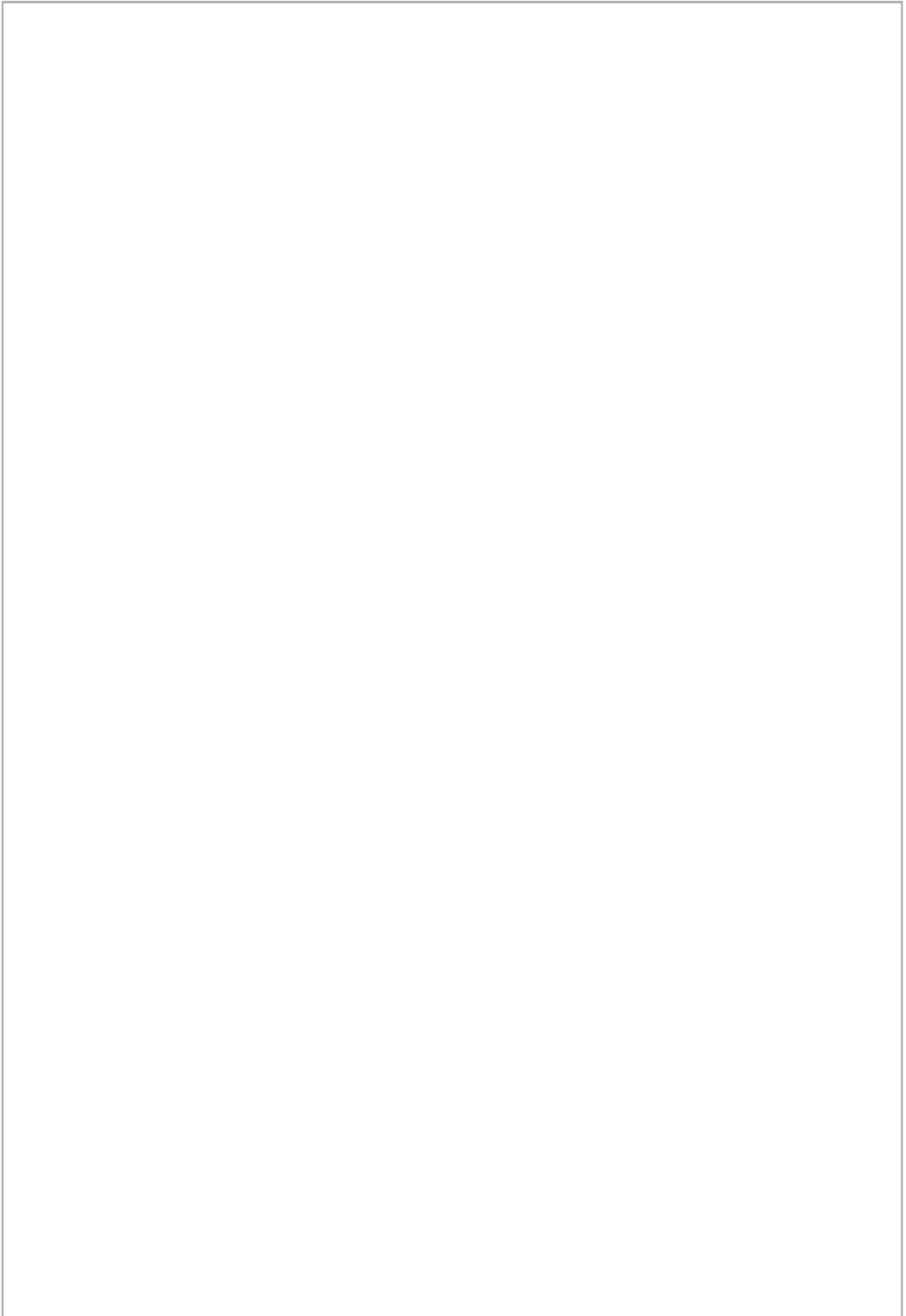
다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40대, 50대 여성이 20대 여성과 경험하는 다른 강점과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몸-훈련 프로그램은 또한 무엇일까.

결과가 예정된 피해가 아닌 싸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싸움을 수행하는 여성의 위치를 상정했을 때, 원치 않는 싸움과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반격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권리, 불가항력 여성의 정당방위와, 행위력을 자인하는 여성의 정당방위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내 안의 또 다른 ‘나’ 만나기

박미라 | 칼럼니스트, ‘천만번 괜찮아’ 저자

☞ 오늘 당신의 미친년이 하는 소리를 이곳에 기록해 주세요.



《 오늘 당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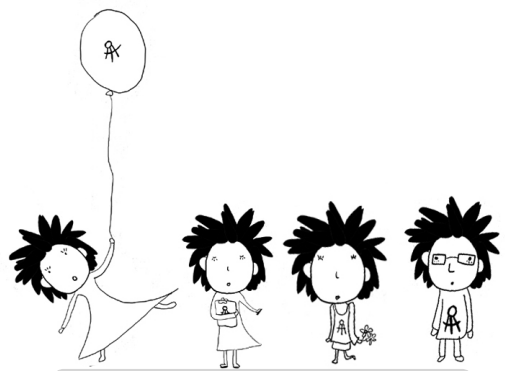
1, 당신은 오늘 내면의 미친년을 만났습니까? 그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녀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2. 당신의 미친년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3. 당신이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 오래 서성인 너, 이제는 편히 쉬기를.
- 영광의 생존자,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ㄹ 위의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마무리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로서
고민하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 활동가로서의 '나' 그려보기

이산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기꺼이 칭찬받기

- (1) 두 명씩 짝을 지어 마주 보고 앉아 서로에게 칭찬을 세 가지씩 해 봅시다.

칭찬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웃으면서 칭찬을 받아들입니다.

- (2) 받았던 칭찬 중 가장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골라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그 칭찬의 내용이 내가 한 번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했거나, 예전엔 늘 지적을 받았거나, 스스로 오히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가요? 우리의 약점과 강점은 때때로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2. 자기 조각

- (1) 두 명씩 짝을 지은 뒤, 내가 되고 싶은 상담자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조각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눈앞에 그려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세, 동작, 표정을 구체적으로 요청해보세요. 간단한 소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2)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을 조각해본 뒤,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봅시다.

눈에 띄는 작품이 보이면 달려가서 작가에게 설명을 부탁할 수도 있겠지요.

3. 약속하기

(1) 내가 되고 싶은 상담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 다섯 명씩 짝을 지어 나의 약속을 나누어봅시다. 약속을 나눈 분들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4. 나에게 주는 수료증 만들기

(1) 칭찬해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는 수료증을 만들어봅시다. 수료증에 쓴 문구를 적어봅시다.

발행일 | 2007년 8월 22일

발행인 | 이미경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사무전화 | 02)338-2890~2

상담전화 | 02)338-5801~2

이메일 | ksvrc@chol.com(상담) ksvrc@korea.com(사무)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기획 | 수하, 이산, 키라

편집 | 강서희, 수하, 이산, 키라

표지디자인 및 인쇄 | 나드디자인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사무 02)338-2890~2 | 상담 02)338-5801~2 | 팩스 02)338-7122

E-mail ksvrc@sisters.or.kr | <http://www.sisters.or.kr>